

석사학위논문

초등 도덕과의 생명존중교육 방안 연구

지도교수 허 정 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민윤리교육전공

양 윤 정

2005년 8월

초등 도덕과의 생명존중교육 방안 연구

지도교수 허 정 훈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6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양윤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5년 7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국문초록>

초등 도덕과의 생명존중교육 방안 연구

양 윤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허 정 훈

과학과 산업의 발달은 환경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주의적인 사회 병리적 경향을 인간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나아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준에 까지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더욱이 인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중심의 사고,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고와 행위가 현재의 총체적인 생명 위기를 양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도덕성의 기본으로서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실 생명문제만큼 인간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분야도 드물다. 시간 안의 생명이야말로 인간 실존의 통합된 과정 전체를 위한 기본 조건이며 출발점이고 핵심인 것이다.

또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삶을 유지하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그런데 오늘날 자연 환경은 분별없는 개발과 낭비로 말미암아 자원의 고갈, 수질오염, 대기오염, 삼림지역의 황폐화, 생물체의 멸종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자연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간은 생태계의 파괴라는 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명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생명 윤리의 문제를 생명의 영역 전체로 확대시킬 경우 자연에 대한 관점 역시 윤리적 의무와 상관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 과정은 단순히 자연을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 생명의 역동성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제 생명존중의 윤리는 우주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권의 문제이자 공생의 문제이다. 인간과 자연, 우주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인간 발달 초기인 아동기에 이러한 생명존중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초등학교시기에 자연을 통한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일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밑거름이 된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가치갈등의 문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가치갈등 사례 토론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인간과 자연환경의 공생을 추구할 수 있는 생명공동체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첫째 도덕과 교육에서 자연환경을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생명공동체의 개념에 따라 공생적 자연관의 확립, 생태학적 감수성의 함양, 자연보전의식의 생활화를 지향하는 생태중심의 가치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덕과 교육은 이원론적 세계관 및 가치관으로부터 전체론적 세계관 및 가치관으로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생명의 개념을 확대하는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자연은 인간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다. 고대로부터 지속되어온 동양의 생명관이나 최근 서양에서 논의가 활발한 유기체론에서는 인간과 자연은 분리될 수 없는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로 파악한다. 이제 인간은 물론 돌맹이 하나까지 소중한 생명체로 존중해야하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앞으로의 생명 존중 교육은 환경교육과 인간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도덕교육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II. 생명존중교육의 의미	4
1. 생명의 의미와 가치.....	4
2. 생명 가치에 대한 윤리학적 관점.....	12
3. 생명존중교육의 방향.....	18
III.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생명존중교육.....	25
1. 생명존중을 위한 도덕과 교육의 기본 목표.....	25
2. 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생명존중 내용	27
3. 교수-학습 전략.....	34
IV. 주제별 생명존중교육 방안.....	36
1. 주제선정 기준	36
2. 주제별 프로그램.....	38
V. 결론.....	64
참고문헌.....	66
ABSTRACT.....	68

표 목 차

<표 1>생활영역별 학년별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요소.....	28
<표 2> 7차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생명존중 내용	31
<표 3> 생명존중 프로그램.....	38



I. 서론

과학과 산업의 발달은 환경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주의적인 사회 병리적 경향을 인간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나아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준에 까지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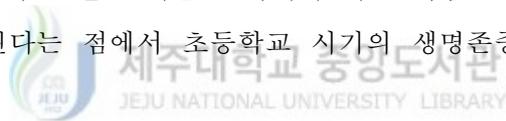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패러다임이 수백 년 동안 우리 사회와 문화를 지배해 오면서 경제성장 중심의 사고,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고와 행위는 현재의 총체적인 생명 위기를 양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단 이것은 과학적 합리주의와 산업사회의 부작용 때문만은 아니며 더 근본적인 원인은 ‘생명의 의의’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오해에서 기인된 것임을 간과할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도덕성의 기본으로서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실 생명문제만큼 인간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분야도 드물다. 인간이 인격체로서 존엄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의 생명이 위대함과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간 안의 생명이야말로 인간 실존의 통합된 과정 전체를 위한 기본 조건이며 출발점이고 핵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존중의 윤리’는 도덕과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윤리의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사회는, 사회성원들의 미적 판단력의 고양에 자연미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근거가 되고, 이러한 사회가 곧 상생의 윤리를 위한 자발적 기초가 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하는 것은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연대를 기초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 환경은 분별없는 개발과 낭비로 말미암아 자원의 고갈, 수질오염, 대기오염, 삼림지역의 황폐화, 생물체의 멸종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자연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간은 생태계의 파괴라는 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명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생태적 위기의 문제와 관련되어 환경 윤리가 주목받

고 있다. 인간은 자연과 독립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삶을 유지하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이 때문에 환경 윤리가 도덕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윤리의 영역 가운데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 윤리의 문제를 생명의 영역 전체로 확대시킬 수 경우 자연에 대한 관점 역시 윤리적 의무와 상관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 과정은 단순히 자연을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 생명의 역동성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제 생명존중의 윤리는 우주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권의 문제이자 공생의 문제이다. 인간과 자연, 우주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인간 발달 초기인 아동기에 이러한 생명존중 교육을 시작해야 하며 인간의 태도와 가치는 어린 시기에 형성되기 때문에 어린 시기일수록 정의적 영역에, 나이가 많을수록 인지적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더욱이 한 번 형성된 정의적 감정과 태도를 쉽사리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초등학교시기에 자연을 통한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일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시기의 생명존중교육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존중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고찰하여 생명과 생명윤리의 개념 정립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도덕과 교육의 역할을 모색하고 강조하는 데 있다.

둘째, 도덕과 교육에서의 다루고 생명존중 내용을 살피고,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생명 존중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를 강조 하는 데 있다.

셋째,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과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을 위한 교육 방안으로 환경윤리를 생명 윤리의 하부 영역으로 포함시켜 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구안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I장 ‘생명 존중 교육의 의미’에서는 생명의 개념과 생명가치에 관한 윤리학적 관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생명 존중의

대상을 자연으로 확대함으로서 생명존중교육과 환경교육을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Ⅲ장 '7차 도덕과정의 생명 존중 내용'에서는 초등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생명 존중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생명 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 생명존중교육이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Ⅳ장 '주제별 생명존중교육 방안'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생명 존중 프로그램을 주제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생명존중교육의 의미

1. 생명의 의미와 가치

우리는 누구나 생명이 무엇인지 안다. ‘생명’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비교적 손쉽게 추상해 낼 수 있는 개념이며 일상적으로 별 큰 어려움 없이 통용되는 개념이다. 우리는 살아 있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의 과정에서 살아 있는 존재를 특징짓는 내용 즉 ‘살아 있음’의 성격상 추상해낸 개념이 바로 ‘생명’인 것이다.¹⁾

그러나 생명이라는 개념은 다의적으로 사용된다. 생명의 본질에 대한 학문적 설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생명 현상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그 기원과 원리를 탐구 해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적인 성찰이나 믿음을 기본으로 하여 철학적 또는 종교적 답변을 얻는 것이다.

우리말 사전에 의하면, 사람들은 생명은 대체로 살아 있는 것과 살아 있지 않은 것을 분간해 주는 기준, 즉 목숨을 의미하며 생물의 생활현상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생명의 사전적 정의는 엄밀히 말하면 同語反覆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엔텔레키아’설을 비롯하여 많은 철학자들이 생명에 관해서 정의를 내렸지만, 그러한 논의는 이미 전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데 불과할 뿐 새로운 것으로 종합하지 못했으며, 생명의 어떤 필요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을 뿐이고, 충분조건을 제시해 주지는 못했다. 이보다 좀더 과학적인 정의를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생명의 정의를 대략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즉 생리적, 대사적, 유전적, 생화학적 및 열역학적 정의이다.²⁾

생명에 대한 생리적 정의에서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생리작용을 나열하고 이러한 생리작용을 지닌 대상을 생명체라고 규정한다. 이것

1) 장희익(2001), “새로운 생명가치관의 모색”, 생명가치와 환경윤리학회간 연구보고서, p.16

2) 진교훈(1999), “생명이란 무엇인가”, 한국생명윤리학회지 제2호, p.145

은 우리의 상식적 생명규정에 가장 근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본질적 특성을 다 보여주지 못할뿐더러 모든 생명체가 이러한 작용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사적 정의는 신진대사가 생명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며 적어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내적 성격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외부와는 끊임없이 물질교환을 수행해 나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식물의 종자나 박테리아의 포자 등은 상당 기간 대사 작용 없이도 존재한다. 유전적 정의는 한 개체가 자신과 꼭 닮은 또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 내는 특성을 가진 것을 의미하며, 생식작용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꿀벌 중에 일벌이나 노새와 같은 동물은 생식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이것은 생명의 정의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리적, 대사적, 유전적 정의와 같은 전통적인 생물학의 개념으로는 생명의 정의는 불충분할뿐더러 생명의 속성을 다 밝힐 수 없다.

그래서 생화학적 정의와 열역학적 정의가 등장했다. 생화학적 정의는 생명의 특성을 유전적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핵산분자, 즉 DNA분자들과 생물체 내에서의 화학적 반응을 조절하는 효소분자, 즉 단백질분자들이라고 보아 이러한 물질들을 기능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체계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정의도 결점을 가지고 있다. 상이한 분자적 구조를 지니면서도 기능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체가 나타날 때 이를 생명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반론에 대응할 수 없다. 예컨대 일종의 바이러스를 닮은 스크라피 병원균은 스스로 어떤 핵산분자도 지니지 않으면서 숙주의 핵산분자를 활용함으로써 번식을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화학적 정의와는 달리 열역학적 정의는 생명을 자유에너지의 출입이 가능한 하나의 열린 체계로서 보고 특정한 물리적 조건의 형성에 의하여 낮은 엔트로피, 즉 높은 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특성을 지닌 존재로 규정한다. 이 정의는 생명의 체계가 어떠한 소재로 이루어졌든 간에 이러한 기능만 수행할 수 있으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의도 생명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높은 질서의 유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물질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생명체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생명의 정의는 생명의 외적인 물리적인 사태에만 주목하고 생명의 내면적인 차원을 소홀히 다루었다. 자연과학적인 생명관은

마치 생명은 오로지 물질인 것처럼 생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측면을 철저히 무시해 버렸다. 따라서 이러한 생명관은 생명을 온전히 해명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생명의 개념보다 생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예컨대, 생물현상은 이러저러한 특성이 있다고 설명될 수 있다. 생물은 무생물과 달리 조직적이고 물질대사를 하며 성장하고 자신과 같은 것을 번식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생명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현상은 생명의 본질을 다 밝혀 주지 못한다.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생명과학은 생명의 본질이나 생명의 기원을 다룰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출현(발생)은 과거 단 한 번 일어난 유일한 사건이며, 자연과학은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생명의 기원문제는 엄격히 실험과학의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과학자들이 생명의 기원을 문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과학의 영역을 떠나 철학적, 종교적 영역에서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생명이 초자연적인 계획과 설계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믿는 창조론이나 수십억 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자연적인 방법으로 무기물로부터 자연 발생하여 간단한 생물이 출현하고 그 후 복잡하고 질서 있는 조직을 갖춘 고등생물로 서서히 진화되었다고 보는 자연발생론 내지 진화론도 다 같이 처음부터 생명에 대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전이해에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³⁾ 그러므로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전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실험과 관찰을 토대로 생명에 관해 연구하는 모든 생명과학들은 그 방법론에서도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생명과학들은 생명 전체보다는 어떤 특정한 생물들의 어떤 부분을 설명해 주는 데 불과하다. 생명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현상의 특성을 망라하고 이를 통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험과학들은 생명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 실험과학은 온갖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실제로 다 종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설사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종합은 자의적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며, 개괄적인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의 가능조건으로 먼저 생명 전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전

3) 진교훈(1999), 전게서, p.146

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과학의 과제가 아니라 철학의 과제이다.⁴⁾

생명에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우리는 실제로 생명의 깊은 뜻을 은유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 문학적-예술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⁵⁾

철학자들의 생명관을 간단히 요약하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같은 생의 철학에 있어서도 베르그송(H. Bergson)이나 블롱델(M. Blonel)은 초월성을 인정하지만, 클라게스(L. Klagers)에 있어서 생명이란 순전히 유기체 안에서 요동하는 생물학적 힘이다. 그러나 이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지성의 추상적인 활용이 기적이고 형식적인 개념 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개념 구조들이 그것들을 산출하는 인간에 있어 삶의 깊은 근원보다도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이다.⁶⁾ 동양철학의 경우, 인도인들에 따르면 열반한 사람은 생명이 '있음'과 '없음'의 어떤 사유에도 걸림이 없다. 요컨대 생명 없는 생명관이다.

먼저 그리스도교의 생명관은 성서에 근거하고 있다. 구약성서에서는 생명을 나타내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하나는 하임(hajjim)인데, 이 말은 지상에서의 삶, 즉 일생과 죽음에 반대되는 삶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른 하나는 네페쉬(nepeš)인데, 이것은 인간을 활동시키는 생명의 핵심으로서 인간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생명 그 자체이다. 이것들도 또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신과의 관계에서만 이해되는 것이다. 신약성서의 생명관은 인간의 자연적인 생명을 말하는 비오스를 넘어서서 참생명, 즉 영원한 생명에 초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의 영생과 구원은 인간에게 국한됨으로 그리스도교의 생명관은 인간중심적임을 면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불교의 생명관은 정신적 초월적 인식의 대상으로 생명을 본다. 생명 자체보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와 관련하여 사색되고 있다. 따라서 불교의 생명관은 유기물이든, 무기물이든 산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거기에 모두 생명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 이 세상 삼라만상이 곧 생명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처럼 개체생명

4) 황경식(1997), 「개방사회와 윤리」, 철학과 현실사, p.315

5) 진교훈(1982), 「철학적 인간학 연구 I」, 경문사, pp.12-14

6) 강두호(2001), “도덕과 내용구성에서 생명존중사상과 환경윤리”, 「도덕과 교육론」, 교육과학사, p.140

은 초월적이며 내재적인 실체와의 관계성을 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 인과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불교의 생명관은 전통적으로 생명현상 자체를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생명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연결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순환하다가 궁극에 가서 해탈하기에 이른다고 본다. 말하자면, 불교의 생명관은 행위에 따른 생명의 윤회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로서 불변적인 본성이 없고, 지은 업에 따라 윤회하며,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이다. 동물을 해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⁷⁾

세 번째 유교의 생명관은 공자에 의하면 도(道)에서 나누어진 것을 명(命)이라 하고, 하나에서 이루어진 것을 성(性)이라 하고, 음양에서 변화하여 형상으로 변화된 생(生)이라 하며, 그 변화가 다하여 그 수가 다한 것을 사라고 한다. 즉 명은 성이 시작이요, 사는 생의 종료이다. 이 시(始)가 있으면 반드시 종(終)이 있는 것이다⁸⁾. 孟子가 생명의 근본원리를 存養과 自然之性에 두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助長하지 말아야 한다(勿助長也)”고 말한 대목에서 유교의 생명관의 요체를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교에서는 ‘인’의 실현을 심화하고 확장해 가면 만물과 내가 일체를 이룬다는 몰아일체론을 제시한다. ‘인’의 성숙한 구현을 통해 만물과 일체를 이루는 세계관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관을 통해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도 실현하며, 나아가 식물이나 무생물 등에 이르기 까지 모든 사물과 조화를 추구하는 논리를 확보할 수 있다.⁹⁾

네 번째 도교에서 도는 생명이 근원으로서 상(常), 무형(無形), 무소부재(無所不在), 무위(無爲)의 특성을 갖는다. 도의 이 같은 특성은 현상으로 존재하는 생명 의미를 희석시키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현상을 더욱 의미 있는 존재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생명은 어떤 조건이나 장식도 필요 없이 자연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로

7) 진교훈(1998), 「환경윤리」, 민음사, p.130

8) 배영기(2002), “생명윤리에 관한 생태 문화적 연구”, 「윤리학과 윤리교육」, 경문사, p.185

9) 장정훈(2002),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생명존중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p.30

서 가치 있다는 것이다. 노자는 먼저 생명을 중요시하는 ‘생생론’이다. 여기서 앞의 생은 생명을 가리키며, 뒤의 생은 생활이다. 생명과 생활을 하나로 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역(易)이라고 하였다. 또한 노자는 ‘정공론(靜公論)’을 들고 있다. 논리적 사유로서는 접근하기 어렵고 다만 ‘마음을 비울대로 비워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극치를 감지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고요함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생명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생명으로 복귀한 상태를 상(常)이라 하고, 이 상(常)을 아는 것이 명(明)이요, 이 상(常)을 모르고 제멋대로 행하면 흉하다. 이것이 생명의 공의(公義)로운 이상사회를 이룩하는 관건이라고 하였으며, 그의 독특한 생명론이라고 할 있다. 또한 과도한 욕구로 손상되지 않고 어떠한 관념의 틀에도 얽매이지 않는 생명윤리를 모색하였다는 점은 현실의 불합리한 살생상황을 비판할 수 있는 잣대로 삼기에 충분하다.

생명의 의미는 쉐러(M. Scheler)¹⁰⁾나 베르그송(H. Bergson)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생명의 의미는 明證的이며 본질직관(本質直觀)에 의해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무엇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의 본질은 신비로 가득 차 있다. 그 누구도 생명의 신비를 다 파헤쳐 보여 줄 수 없다.¹¹⁾

‘생명’이란 말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주, 그리고 다의적인 뜻으로 사용되는 말도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종교가, 철학자, 문학자, 의사, 생물학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생명이라는 말을 중요시하고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그들 간에 생명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견해를 찾아보기 어렵고, 더구나 같은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에도 관점에 따라 생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믿으며, 또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생명이 이세상의 질서의 근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명을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생명은 우주의 가치중립적 사실이 아니라, 본래 좋은 것으로 존중받을 만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단지 생명은 의미 있고 가치가 충분한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생과 생명에 손상을 입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10) 진교훈(1998), 전계서, p.179

11) 진교훈(2001), 전계서, p.106

며,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명은 존귀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명이 존귀함을 이해하고 어떻게 고양시킬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생명의 가치를 논하는 이들 가운데는 어떤 특정한 인간의 생명만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어떤 인간의 존재는 다른 인간의 존재보다 내면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음에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며 모든 인간이 하나로 인류를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든지 국적, 성별, 인종, 종교, 재산, 학식, 신체조건 등이 차별 없이 구분하고도 완전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으로 우리는 인간 생명의 가치 범위에 그 어떤 제한을 가해져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생명만이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인간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니 다른 동물의 생명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인권과 마찬가지로 동물권의 보호를 주장한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생명의 가치의 의미를 확대해서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넓게 우리가 비생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연에까지 심지어 우주 전체에까지 생명의 의미를 확대 적용하는 이들도 있다.

모든 생명체는 자연으로 나왔으며 자연으로 돌아간다. 모든 생명체와 자연은 연대 공동체이며 하나의 운명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순환의 파괴는 생명체에 대한 심대한 타격을 준다.

자연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안식처이다. 이 안식처의 위기는 생명의 위기이다. 이 생명의 위기는 이른바 '생태학적 위기'와 바로 직결된다. 이 위기는 인류의 역사에서 최근세에 들어와 발생했고 극히 짧은 기간에 일어났다.¹²⁾

최근 환경윤리학자들은 '생명'의 개념을 재조명하면서 생명은 인간의 이익과 관심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고유한 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설명, 수용하지 못하는 현재 윤리학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윤리가 요청되고 있다.

12) 진교훈(2001), "생명이란 무엇인가", 한국생명윤리학회지 제2호, p.106

오늘날 생태학적 위기의 근본원인은 생명의 의의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오해에 기인하며 인간 이외의 생물이 지닌 생명가치의 문제는 심각한 현실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장래뿐만 아니라 생명체 전체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좌우될 상황에 놓여 있다.

생명의 가치는 너무도 기본적인 것이어서 ‘이념적 가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살아가려는 의지, 즉’의 지적 가치 형태로 모든 생명체들의 본능 속에 깊이 각인 되어 있다. 특히 인간이 경우엔 명시적으로 의식하고 있으며 이렇게 의식된 내용이 바로 자신의 생명가치관을 이루는 선천적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분명한 점은 이러한 생명가치관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이러한 소중함의 관념이 오로지 자신의 생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같은 정도로 소중하다는 대원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기까지는 오랜 역사적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슈바이처는 생명의경사상을 통하여 인간 의식의 근본적 사실로 살려고 애쓰는 생명의 중심에서, 나는 살려고 애쓰는 ‘생명’임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사실을 경외 할 때 윤리가 출발한다고 하였다. 그는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 즉 우리에게 경외와 외경을 명령하는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베르그송은 “광물은 생명이 전혀 잠든 상태”라고 말했다.¹³⁾ 불교에서 말하는 만법유의론(萬法唯義論)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려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명의 범위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극단적인 입장을 피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함의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고 자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생명의 평등주의’에는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인간의 생명이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살해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이유로 어떤 꽃나무를 죽이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이 가치가 있다고 해서 어떤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보다 더 좋은 가치를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현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인간은 먹지 않고 살 수 없다. 많은 경우에 생명체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따라

13) 황종환(1993), “생태윤리의 근거정립을 위한 자연관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p.49

서 모든 형태의 생명이 똑같이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단적인 생명 평등주의를 실제로 수용할 수 없고 생명의 가치의 질적인 차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큰 조화 속에서 중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¹⁴⁾

서양의 전통윤리는 거의 배타적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바람직한 관계만을 논해왔고 매우 인간 중심적이지만, 동양의 전통적 윤리학은 인간과 인간과의 바람직한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중시해 왔다. 예컨대 동양의 정신은 “도(道)와 하나가 된 이 세계의 모든 인류와 생명은 모두 정(情)이 통하는 통일체 속에 일원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다 같이 안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성 프란체스코, 슈바이처, 쉘, 베르그송은 이와 비슷한 사상을 가졌다. 특히 슈바이처의 생명에 대한 외경의 철학은 인간 아닌 생명체, 즉 동식물의 가치와 그러한 생명체의 보호와 보존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다.¹⁵⁾

우리는 어떤 생명이 다른 생명의 존속을 위해서 희생될 수밖에 없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악한 것이 된다. 가령 심심풀이 스포츠 살생을 사는 것은 생명의 모독이며 악한 것이다. 따라서 한 생명의 보전을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 희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생명체의 가치가 다른 생명체의 가치보다 더 높다든지 더 낮다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평가의 정도는 전적으로 통념과 주관적인 기준에 의거할 뿐이다. 모든 생명체는 물론, 자연 전체는 공생관계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만 생명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동식물과 무생물에까지 그 가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2. 생명가치에 관한 윤리학적 관점

가치관이라고 함은 무엇을 소중한 것으로, 즉 가치 있는 규정으로 하는가에 대

14) 장희익(2001), 전제서, p.140

15) 윤순애(2001), “생명윤리교육의 현황과 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p.11 재인용

한 일반적 관점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자신의 생명에 부여하는 가치를 생각할 수 있다. 아무리 소중한 것도 자신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므로 생명의 가치야말로 그 모든 가치를 이루는 기본적인 가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적어도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무엇인가를 구현하려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이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¹⁶⁾

오늘날 생태학적 위기가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인간중심주의적 관점과는 달리, 인간 이외의 모든 생명체도 그 자체 고유한 가치와 자기 목적을 가지며, 그리고 각 생명체는 그 스스로 주체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생태계위기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것을 우리는 생태윤리학의 여러 관점 가운데서 생물중심주의적 입론이라 부른다. 그러나 일부의 생태윤리학자들은 이 같은 생물중심주의적 관점을 편견이라 비판하면서 생태윤리학은 어디까지나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생태윤리학자들은 감각을 갖는 모든 자연존재는 도덕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는 감각중심주의적 입장을 주장하기도 하며, 그리고 어떤 생태윤리학자들은 생명의 고유한 가치뿐만 아니라 무생명적 자연물도 그 자체 고유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윤리학적 전체론(ethical holism)이라 한다.

그렇다면 생태 및 환경윤리학이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논의되는 근본적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규범설정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가치론적 승인의 문제에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치론적 승인이란 우리가 어떤 존재를 다른 존재 보다 더 독립적이며 더 나은 본래적 가치(intrinsic value)를 갖는 것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즉 무엇을 본래적 가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생태 및 환경윤리학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디터 비른바허(Dieter Birnbacher)는 자신의 논문 “인간과 자연 : 생태윤리학의 근본특징”에서 프랑케나(W. Frankena)의 분류에 의거하여 생태 및 환경윤리학의 논의를 ①인간중심주의적 접근, ②감각중심주의적 접근, ③생물 및 생태중심주의적

16) 장희익(1997), “새로운 생명가치관의 모색”, 생명가치와 환경윤리학회간 연구보고서, p.315

접근, ④전체론적 접근으로 나누어 간략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인간중심적 접근

인간중심주의적 접근은 오직 인간만이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입장, 즉 가치의 무게 중심을 인간에게 두는 윤리적 관점이다. 여기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권리행사의 기준은 바로 인간 자신이다. 이 경우 인간은 현존하는 인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존속하게 될 인간 전체를 포함한다. 인간을 제외한 자연은 파생적(비본질적) 가치만을 갖는다. 그것도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자연이 항상 인간에 대해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만 그렇다. 오직 인간에 의해 주어지고 촉발된 자연의 힘 혹은 그 활동만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한다.¹⁷⁾

인간중심주의적 접근은 서구 윤리적 전통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것은 칸트의 관념론적 철학체계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칸트는 자연을 현상의 총체로 보고 있다. 즉 자연은 그것의 주체인 인간에게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은 인간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것은 가치의 중심이 어디까지나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지, 자연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이, 독사 등이 비록 인간에게 해악을 주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는 것은 조금도 그르지(wrong) 않다고 한다. 또 인간의 고통을 없애거나 경감할 의무가 있고, 또한 타인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의무를 지닌다.

고등동물은 그들이 비록 고통을 느낄 능력이 있다 해도, 도덕규범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따르는 도덕적 주체가 아니며, 동물들은 인간과 동물 상호간에 존재하는 의무와 권리를 알아듣도록 설명할 수 있는 계약적 주체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어린이는 도덕적 주체도 계약적 주체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에게는 성숙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의무와 권리가 이미 부과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회피라는 규범은 동물과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인간중심주의자들은 동물을 보호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 다만 그들은 연민의 입장에서가 아니면, 도구적 입장에서 동물을 보호할

17) 구승희(1995), 「에코필로소피」, 새길, p.62

뿐이다. 어쨌든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을 취할 경우, 우리는 환경친화적이기 보다는 생명파괴적인 곳에 더 근접해 있다고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2) 감각중심적 접근

감각중심적 접근은 감각을 지닌 모든 자연존재들을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물론 감각을 지닌 짐승들도 본래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 관점은 감각 능력이 없는 자연의 간접적 중요성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¹⁸⁾

감각중심주의의 대표적 형태는 ‘고통의 최소화 윤리’이다. 이 논점은 감각을 가진 짐승에게 고통, 불안, 긴장 혹은 기타의 고통을 주어서 안 된다는 ‘홀대금지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 관점이 통용된다면, 동물보호운동은 그만큼 용이해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동물보호의 이념을 확산 내지 관찰하는데 크게 기여한 윤리로서 영국의 공리주의, 쇼펜하우어의 연민의 철학, 슈바이처의 생명에의 경외 등이 있다.

이 같은 윤리관은 동물과 인간 사이의 존재론적 유적구분에 있어서 전통적 인간주의적, 기독교적 세계관보다 훨씬 덜 엄격하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감각적 존재를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가를 최상의 윤리적 문제로 삼는다. 즉 문제가 되는 것은 ‘짐승들이 이성적 추론을 할 수 있는가?’도 아니요,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는가?’도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고통을 느끼는가?’이다.” 이 같은 벤담의 명언에 따라 감각을 가진 짐승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은 이제 공리주의 윤리학의 한 영역이 되어 왔고, 이제 감각중심주의적 생태윤리학은 공리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감각능력을 갖는 존재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본래적 가치를 가지며, 인간은 이들을 상해할 그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주장하게 된 것이다. 어쨌든 이 입장은 본래적 가치를 인간뿐만 아니라 감각을 갖는 모든 존재물에 까지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물보호 이념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8) 구승희(1995), 전제서, p.63

3) 생태(생명)중심적 접근

생태중심주의자들은 감각을 갖고 있든 그렇지 않는 간에 모든 생명체는 도덕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며, 모든 살아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고 한다. 이들 중 소수만이 ‘인간의 삶만이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¹⁹⁾하는데, 슈바이처가 바로 그 경우이다. 슈바이처의 경우는 생물중심주의적 논점의 한 예외라 할 수 있다. 즉 슈바이처는 ‘생명에 대한 경외’의 윤리에서 모든 살아있는 종들(동물, 식물, 인간, 짐승)의 가치등급을 분명히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주는 것은 정당화되고, 심지어는 인간의 삶을 위해서는 동 식물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예컨대 모기가 말라리아의 원인이고 그 모기가 지금 나의 신체에서 피를 빨다고 가정할 경우, 슈바이처는 분명히 모기를 죽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생태(생명)중심주의자들은 인간의 생명과 비교해서 동 식물의 생명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해 그리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를 동등한 가치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입장에 입각할 경우, 한 식물의 멸종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이 식물의 멸종을 통해서 오직 다른 식물들이나 동물 혹은 인간의 생명이 더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건에 한정될 뿐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의 풍요성과 안락성을 위해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멸종시키고자 한다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나 동 식물의 생명은 그 자체 동등한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트필드(Robin Atfield)처럼 동물과 식물은 그 등급에 따라 도덕적 의미가 부여된다고 하는 주장이나, 이와 반대로 생물 유기체의 진화 정도에 따라 개별적 삶의 본래적 가치등급이 매겨질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매우 온건한 생명 및 생태중심주의적 견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나무 한 그루의 생명이 인간 생명의 만분의 일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고 해서, 나무 만 그루 이상을 베는 것 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차라리 도덕적으로 더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9) 구승희, 전게서, p.64

4) 전체론적 접근

생물 및 생태중심주의자들은 언제나 살아있는 자연에 대해서만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는데 반해서, 전체론자들은 이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본래적 가치 개념을 무생명적 자연에 까지 확대한다. 즉 생명의 가치를 포함해서 미, 질서, 목적론적 조직, 연륜 등 다양한 본래적 가치들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생명적 자연물도 최소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함부로 파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체론적 입장에 의하면 자연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 본래적 가치를 지니며, 또한 자기 보존의 명백한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자연전체(생태계 전체)뿐만 아니라, 개별적 자연존재에 대해서도 가치를 인정한다. 이러한 입장을 우리는 생태중심적 전체론이라 부른다. 그런데 전체론적 입장 가운데서 개별적 자연물(나이아가라 폭포, 정이품 소나무 등)이나 개별적 자연물의 집합(생물, 생태계, 자연 경치 등)에 본래적 가치를 부여할 경우 이를 '자연중심주의'라 하며, 그리고 생태계 전체를 문제 삼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생태중심적 전체론'이라 부른다.

생태윤리학의 다양한 접근 방식 가운데서 가장 솔직한 자연경험에 접근해 있는 것이 전체론적 입장이다. 가치는 단지 생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금강산의 빼어난 경관은 그 자체 미적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보존되어 마땅한 것이다. 전체론적 주장에서처럼 우리는 자연이 갖는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것을 보존할 명백한 의무를 지닐 때, 자연 및 환경보전은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생명가치의 적용범위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그 자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다른 생명체도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와 생명의 질적 가치구분의 근거에 대한 해답은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고 우리의 통념과 주관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살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적절한 대응, 즉 중용과 조화가 배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생명존중교육의 방향

교육의 근본은 생명을 존중하고 자기실현을 도와주는 데 있으며 생명존중은 인성교육의 근본과제이다.²⁰⁾

앞장에서 살펴 본 생명의 의미와 관련하여 보면 도덕과 교육에서 있어서 생명에 대한 자연과학자들의 설명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기계론적이고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제한 될 수 없다. 오히려 생명의 신비에 의미를 두고 철학의 전통을 따라야 하며, 종교적 생명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간 생명을 삶의 현실로부터 추상화된 어떤 내적인 것으로 한정짓지 않으면서도 인간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고 할 때 더욱 그렇다. 생명의 의미는 셸러(M. Scheler)나 베르그송(H. Bergson)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생명의 의미는 明證的이며 본질직관(本質直觀)에 의해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무엇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의 본질은 신비로 가득 차 있다. 그 누구도 생명의 신비를 다 파헤쳐 보여 줄 수 없다.

한편 생명체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 물, 공기 등을 자신의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사용하며, 일부는 자신의 체내에 저장하고 폐기물은 체외로 분출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해 나간다, 따라서 생명체들은 자신이 놓여 있는 환경의 조건에 지배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는 대단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현상이다.

오늘날 생태학적 위기의 근본원인은 생명의 의의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오해에 기인하며 인간 이외의 생물이 지닌 생명가치의 문제는 심각한 현실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장래뿐만 아니라 생명체 전체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좌우될 상황에 놓여 있다.

모든 형태의 생명이 똑같이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존엄한 이상,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다른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한 신성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최근 생태윤리학자들 역시 자연의 생태

20) 진교훈, “생명과 인간교육”, 생명교육총서 3집, p.152

학적 상호 연관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은 더 이상 적대관계나 지배 관계가 아니며 상호 보완적 동반자 관계로 인식되어야 함을 앞 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윤리적 책임은 인간에서 벗어나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생명 존중이란 인간의 생명을 넘어서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 깊게 연결된 나의 생명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 할 수도 없다.

장희익(2000)은 생명이란 “우주 내에 형성되는 지속적 자유에너지의 흐름을 바탕으로 기존 질서의 일부 국소 질서가 이와 흡사한 새로운 국소 질서 형성이 계기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하나의 유기적 체제”라 규정 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생명존중교육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확대한 ‘삶 우주전체’를 교육의 장으로 바라보려는 것이다. 삶의 과정에서 관계되는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존재 가치들을 재조명함으로써 생명존중을 도덕 교육의 내용으로 끌어 들일 수 있다.

환경의 사전적 의미는 ‘생명체를 둘러싸고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 또는 사회의 조건이나 형편’이다, 나는 나의 것만이 아니라 타자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나의 생명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 존중은 나와 남 즉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만이 아니라 생명 일반 존중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 오늘날 대인 윤리뿐만 아니라 대자연의 윤리 즉 환경윤리를 외치는 까닭도 여기에 있으며 자기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보전하고 존중해야 함은 자연의 질서에도 합치한다.²¹⁾ 이렇게 보면 환경교육은 생명존중 교육에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존중교육은 생명과 환경과의 관계를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학문, 모든 제도, 모든 종교 등 인간 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의 커다란 관계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이러한 모든 생명 관계의 본질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지닌 조직체로 거듭나서 반생명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은 자연을 인간 생명으로 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어 모든 것과 더불어 사는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생명은 절대가치이고 여타의 것은 상대가치이다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의 통합이며 생성변화이다. 생명은 작게 보면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상

21) 소광희(1993), “생명존중과 교육”, 생명문화총서 2집, p.295

호보완하고 의존한다. 모든 생명체는 물론 자연 전체는 상생관계에 있다. 특히 생명의 토대인 지구생명체 즉 하늘, 땅 물, 온갖 풀과 나무 동물과 벌레 미생물 무기물 등과 함께 설가 위해 나, 너, 환경, 생태계, 자연을 모두 아우르는 중용의 삶이 우리 조상들이 희구하던 천·지·인 일체의 세상이기도 하다.²²⁾

생명은 물질이 아니다. 그러나 생명은 물질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생명은 개념정의가 불가능해 보이는 신비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생명을 지키고 존중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누가 왜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생명이 가치가 있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밖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존중교육에서는 모든 존재물에 대한 ‘공생’의 가치를 인식하는데 삶의 과정에서 관계하게 되는 주위의 모든 세계와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개인의 인식과 태도를 갖추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생명존중교육은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과 자연에 대한 존중감을 토대로 한다.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일은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본래 자연의 일부로서 생명체의 전체적 구조 속에서 나름대로 몫을 지니고 있을 뿐 자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려는 사고는 자연에 대한 무책임한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여 왔고, 또한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본질을 잘못 이해하여 인간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왜곡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생물학적관점에서의 생물이나 생명이 없는 물질들과 동일한 가치체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미는 아니다. 인간만이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며, 인간이 아닌 자연의 모든 존재는 인간이 함부로 파괴해도 무방한 저급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인간의 겸손함을 윤리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인간이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는 과거나 현재나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더구나, 자연 생태계 위기는 곧 인간 생존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은 더욱 절실한 요구임에 틀림없다. 이에 자연을 전체적 관점

22) 진교훈(1998), 전계서 p.112

차원에서 ‘생명’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생명존중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연(생태계)을 통해서 공동체적 가치의식을 배우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살고 있다는 공생의 관계에 대한 감수성과 사고력을 경험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에 대한 존중감은 인간에 대한 존중감을 갖추게 하는 기초가 된다. 자연에 대한 존중감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어야 함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자연과 관계에서 느끼는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점차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연계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교육활동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함께 공생하기 위한 관계를 극복하려는 것이 생명존중교육이다.²³⁾

그러므로 생명존중교육은 자연과의 경험을 통하여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활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회적 능력을 형성하려는데 관심을 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연의 생명 속에서 있는 아름다움, 질서, 관계성, 순환성 성실 질서를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명존중교육은 자연의 소중함과 존중감을 토대로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첫째, 생명존중교육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를 누릴 줄 아는 생태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성 중심 사회에서 경시되어왔던 감성을 회복함으로써 삶의 과정에서 무의미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감성은 이성적인 활동만으로 불가능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인간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은 ‘정서적 자유가 지력발달의 선행조건이 될 때 학습의 자유를 갖는다.’는 니일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²⁴⁾ 따라서 감성은 이성의 보조수단이나 부분이 아니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한 부분인 것이다.

사람들은 삶의 느낌을 통해서 세계 또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형성한다고 한

23) 이병래(2004), “유아기 생명존중교육의 의미와 방향”, 열린유아교육연구 제9권 제1호, p.154

24) 이병래(2004), 전게서, p.155

다. 즉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고 조화로운 통합을 위한 변화과정에서 감성이 삶의 느낌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감성은 소외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간의 연결 고리 역할도 하게 된다.

생태 감수성이란 자기 주변의 생태적 상황, 변화 및 그 의미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감수성은 자연에 대한 존중감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배울 수 있다. 성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의 경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²⁵⁾

생태학적 위기가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된 오늘날 이러한 위기는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삶일까?' 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요구한다. 어떤 모습으로 생활할 것인지의 삶의 형식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줄 알아야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며 생명의 존귀함을 배우며, 우리의 생존을 감사하고 안식을 찾는다. 자연을 우러러볼 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을 감히 훼손시키지 못한다.²⁶⁾ 자연감상과 이를 누릴 줄 아는 생태 감수성이야말로 생명존중가치관을 길러주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에 관한 관심 자체가 이미 도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언제나 선한 영혼의 징표이다." 칸트에 의하면 인공미에 관한 감각은 도덕성·비도덕성과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자연미에 관한 관심은 도덕적 감정에 호의적인 정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 앎이 이성적 본질이라면, 도덕적 정서는 종종 도덕과의 논의에서 무시되었던 도덕성이 중요한 감성적 본질이다. 이성적으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성적인 것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도덕성은 도덕적 사태

25) 이재영(2003), "생태감수성에서 생태합리성으로", p. 3 재인용
감수성이 '감각기관에 의해 외부자극의 수용'이라는 제한적 의미를 갖는다면, 감성은 감수성을 넘어서 '외부를 향해 지향하는 표상의 계기와 형식'을 함께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상의 교육적 논의 속에서는 감수성과 감성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26) 진교훈(1998), 전게서, p.113

에 대한 분석력은 뛰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냉혹한 악인이 될 수도 있다. 정서는 도덕적 가치를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심리적 분위기이고, 인지를 운반 해 주는 심리적 기제이다. 도덕적 행위는 인지적 사고의 결과인 동시에 감정적인 반응의 산물이다.²⁷⁾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줄 아는 생태 감수성은 바로 생명 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도덕적 동기화의 함양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도덕성은 단순히 인지적 영역의 확대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올바른 감정이나 정서가 풍부하여 도덕적 앎을 행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어떤 강한 동기를 부여받아야 한다.

자연은 우리에게 반복적인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여 질서와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연은 더 이상 경제적 가치로만 보지 말고, 위생적 가치, 미학적 가치로 확대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오염과 생태학적 위기는 분명 우리가 그 동안 망각 했던 자연의 다른 가치를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공감을 통해 그 안에 이루어지는 생명성에 대한 존경과 외경심을 길러 질 수 있으며 오늘날의 전 지구적인 생명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제시 될 수 있다.²⁸⁾

두 번째 생명존중교육은 우선 인간 존재로서 자신에 대한 가치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교육의 대상이 궁극적으로 개인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것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 갖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여 스스로의 존엄성을 인식함으로써 무한히 열려 있는 자기 자신의 가능성으로 끊임없이 발현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세 번째 현대사회가 처한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개념을 자연에까지 확대, 자연중심적인 생명존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생명공존의 의식은 자연을 우선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자아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가 아닌, 인간과 인간 이외 존재 모두를 포함하는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타자 중심

27) 심성보(1999), “생태윤리학과 도덕교육의 새로운 지평”, 도덕교육연구 7집, 한국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회, p.170

28) 김성연(2000), “도덕과내용으로서 생명존중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60 재인용

적인 보살핌의 윤리가 요청 된다. 인간 중심의 생명 개념을 확대하여 자연속의 인간, 그와 같은 권역에서의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것, 삶과 죽음이 모두 생명체의 소중한 영역이라는 인식 위에 삶과 죽음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Ⅲ. 7차 초등 도덕과의 생명존중 교육

1. 생명존중을 위한 도덕과 교육의 기본 목표

현대사회의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생명위기에 대해 인간은 전적으로 생명보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생명존중을 위한 도덕과 교육의 기본 목표를 설정함에 앞서 다음과 같은 시도가 선행 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생명체와 자연은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존재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동반자 관계, 협력관계, 연대 공동체임을 깨달아야 한다.²⁹⁾

둘째, 생명존중교육은 자연과 생명의 존엄에 대한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앞으로의 사회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식물, 그리고 자연물의 가치도 포함한 광의의 생명관으로 변화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 파괴, 환경 파괴, 우주오염을 막아야한다는 전 지구적인 요청이기도 하다. 그리고 태어나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모두가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삶뿐만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도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간 중심의 생명 개념을 확대하여 자연속의 인간, 그와 같은 권역에서의 생명존중이라고 하는 것, 삶과 죽음이 모두 생명체의 소중한 영역이라는 인식 위에 삶과 죽음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나와 타자 간의 인격과 권리에 대한 상호존중의 관계 정립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동이 자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증진하며 나아가 타인이나 동식물의 생명도 똑같이 존중하는 태도 및 행동을 기르는데 중점

29) 진교훈(1998), 전게서, p.111

두는 교육이 바로 생명존중교육인 것이다.

도덕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생명존중교육은 생태학적 혁명의 시대인 21세기 사회의 생태학적 비전을 심어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생명 존중의 가치관 확립, 생태적 정체성의 확립, 생명 공동체의식의 확립, 생태학적 세계관의 정립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덕적 지식 및 정보,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 및 참여라는 세 측면에서 도덕교육의 기본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지식 및 정보의 측면에서 생태학적 지식과 이해에 기초한 공생적 자연관의 확립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인간은 자연환경의 소유자나 지배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환경과의 구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자연환경관의 상대적인 구별이 가능하며 전체로서의 자연환경, 즉 생명공동체 속의 구성원이며 더 나아가 생명공동체까지 포함된 도덕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이다. 인간은 생명공동체 속에서 여타의 인간들과 여타의 자연적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인간과 자연환경을 분리시키고 인간공동체만을 도덕공동체로 간주하는 도덕교육은 필연적으로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련성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나 신뢰감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을 길러내게 된다. 따라서 생명 위기 시대의 도덕 교육은 인간과 자연환경의 공생적 관계를 바탕으로 재정립된 도덕공동체의식의 함양교육이어야 한다.

둘째, 도덕적 감정의 측면에서, 도덕과에서 생명존중교육은 생태학적 감수성의 함양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인간은 자연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정서적인 풍요를 얻는다. 사실,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여기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배려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배려하는 마음은 나 아닌 다른 인간에 대한 애정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 이외의 자연에 대한 애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신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연환경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애정, 더 나아가서는 자연에 대한 애정의 포괄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생태학적 감수성이다. 이 생태학적 감수성은 두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자연환경으로부터 받은 인상이나 정서적인 느낌으로 인해 형성되는 감수성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연적 대상들과 접촉하면서 혹은 교감의 과정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심미적 감수성이다.

셋째, 도덕적 행동 및 참여 측면에서 자연보전의식의 생활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자연 친화적인 사고가 실천으로 옮겨지는 실천 지향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자연친화적 삶이란 자연보전을 위한 삶이며, 관조적 삶,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이 조화를 이룬 소박한 삶이며 과소비를 억제하는 삶이다.³⁰⁾

요컨대 도덕과에서의 생명존중교육은 자연환경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소위 ‘생명존중’의 성품이 길러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생명이란 어떤 개념이며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생명존중은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덕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생명존중의식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2. 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생명존중 내용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덕목의 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내용의 범위에 있어서는 4개의 생활영역을 사용 생활영역별 5개씩, 모두 20개의 가치·덕목을 핵심 내용으로 선정하여 제시 하고 있다. 생명존중을 위한 도덕과 교육 기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것은 <표 1>에 개인생활 영역에서의 ‘생명 존중’, ‘성실’, ‘절제’ 사회생활영역에서 ‘환경보호’라는 가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3학년은 첫 번째 소단원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청결, 위생, 정리정돈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주로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는 건강관리로서의 청결, 위생, 정리정돈의 중요성이고, 자신의 몸과 주변을 청결히 하고 정리 정돈하는 방법을 배운다.

30) 노희정(2003), “전체론적 환경윤리와 도덕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16호, p.188

<표 1> 생활영역별 학년별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요소

구분	주요 가치·덕목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개인 생활	생명 존중 성실 정직 자주 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결·위생 ▪정리 정돈 ▪맡은 일에 책임 다하기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몸가짐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기 ▪청결·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직한 생활 ▪절제하는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면하고 최선을 다하는 생활 ▪생명을 소중히 하기
가정·이웃·학교 생활	경애 효도 예절 협동 애교·애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도와 우애 ▪인사·언어 예절 ▪약속과 규칙을 잘 지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절과 양보 ▪친족간의 예절 ▪친구 사이의 믿음과 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 아끼고 공정하는 마음 ▪이웃과 다정하게 지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랑과 관용의 자세 ▪학교·교장의 발전과 협동
사회 생활	준법 타인 배려 환경 보호 정의 공동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교통질서 지키기 ▪환경을 보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장소에서 의 예절과 질서 ▪공정한 생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의 권익 존중 ▪공익 추구의 생활 ▪민주적 절차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과 규칙을 잘 지키기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자연 보전과 애호
국가·민족 생활	국가애 민족애 안보 의식 평화 통일 인류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라 사랑 ▪분단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 문화 유산 애호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발전에의 협력 ▪평화통일의 당위성 ▪올바른 국제 문화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해외 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3학년에서는 개인생활에서 일차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기본적인 일을 아동 자신의 청결, 위생, 정리 정돈으로 보고 자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호 유지하고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어서 결국 개인 생활의 생명존중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을 다루고 있다. 4학년에서는 대체로 ‘바른 몸가짐’의 소단원에서 다루어지는데, 학생들은 바른 몸가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몸가짐을 바르게 생활 하는 실천하여 습관화하는 일을 통해서 배운다. 5학년에서는 ‘절제하는 생활’의 소단원에 다루어질 수 있는데, 학생들은 절제하는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려는 자세를 지니는 일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 주로 인간의 생명 보전에 관심을 두고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생명존중과 내용은 6학년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데, 개인생활의 영역 중 ‘생명을 소중히 하기’가 독립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생명의 중요성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하려는 태도와 의지를 지니게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의 의미와 중요성 ② 역사적 또는 일상생활의 경험 속에서 생명존중을 실천한 구체적 사례 및 본받을 점 ,③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구체적 실천 방안, ④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실천하려는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³¹⁾

생명존중교육 목표와 기본 방향은 비교적 잘 설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도방법과 활동 내용 면에서 생명존중 판단하기, 생명 존중 사상 알리는 글쓰기, 생명 존중 사례 모으기 등 대체로 지적인 탐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구체적인 제재들은 주인공 생일과 싯다르타의 일화, 의료봉사로 인간 생명 관련 부분만 제시하고 있다.

단원의 선수학습으로 3학년 ‘환경을 보호하기, 후속학습으로는 10학년의 ‘공동체 의식 문제와 환경문제’ 라고 교사용 지도서에 그 체계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제시된 생태 윤리학의 생명관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환경윤리를 생명존중과 분리해서 사회생활영역에서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중시하면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3학년에서는 환경 보호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 보호 활동을 생활화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 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일의 의미와 중요성,②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파괴의 실태와 그 원인, ③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과 구체적 실천 방법, ④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을 생활화하려는 의지의 습관화’가 제시되고 있다. 6학년에서는 자연 보전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자연 애호를 생활화하려는 태도와 의지를 지니도록 하는 것을 성취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내용 요소로서 ‘① 자연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 및 자연 보존과 애호의 의미와 중요성,② 자연 생태계 파괴의 실태와 그 원인,③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 국가 및 국제적 노력과 협력,④ 자연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과 실천 의지’ 이 제시 되고 있다. 지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 파괴의 현상과 원인(산성비,

31) 교육부(1997),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 p.165

스모그현상,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등) 자연과의 공존, 자연은 우리의 공동의 자원이라는 정신, 생물 중 다양성의 보호,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파괴된 환경 되살리기와 그 정책 및 노력, 물 오염 방지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와 생활의 길잡이를 볼 때 가르치는 방식이 선언적이고 지적 이해 수준에 머무르거나 실천을 촉구하는 정도의 방법에 치우쳐 있다.

초등 도덕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생명 존중 내용을 <표 2>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자.

‘생명의 개념’ 영역은 도덕과 교과서에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는 기회 부여보다는 환경오염과의 관계에서 생명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교과서와 생활의 길잡이 교사용 지도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자연에 대한 심미감과 생명 존중의 자세 그리고 생태 공동체적 관점이 미흡하다. 6학년 교사용 지도서에서 자연과의 공생이라는 관념이 엿보이기는 하나 본격적인 생태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구성, 작동 원리,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을 다루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생명 존중’ 내용은 인간이나 동물, 식물 구분 없이 매우 포괄적으로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미흡하며, ‘환경오염은 인간의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도 지장을 준다.’³²⁾고 하여 전체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접근 되고 있다. 또한 6학년의 경우에도 ‘이스터 섬의 교훈’이라는 소 제재에서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그럼으로써 결국 인간이 죽게 된다는 내용에 한정됨으로써 인간 생명만을 고려하고 있지 자연 존재들의 생명 존중 그 자체를 배려하는 시각은 없으며,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4가지 중 3가지는 대체로 자연을 잘 보호해야 인간이 잘 살 수 있다.³³⁾는 식의 인간 중심적 관점에 치우쳐 있다.

‘생명존중대상’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흐르는 바탕을 ‘슈바이처의 동물 사랑’의 예화를 통해 생명 경외를 ‘짚신이야기’, ‘생명 나눔 운동’의 예화를 통해 불교의 자비

32) 교육인적자원부(2003),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도덕(3-2)」, p.110

33) 교육인적자원부(2003),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도덕(6)」, p.236

사상을 담고 있다. 우리의 전통 윤리를 기본 사상으로 한 내용 즉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와 전설이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³⁴⁾

<표-2> 7차 도덕과 교과서에 제시된 생명존중관련 내용

영역	내용	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생명의 개념	생명의 정의					
생명의 가치	인간 생명		1. 깨끗한 생활 ·건강의 소중함 2. 내 일은 내가 하기 ·남의 생명을 구한 119대원	1. 바른 몸가짐	5. 서로 존중하는 태도	2. 소중한 생명 ·생명을 지키는 수호 천사들 ·국경없는 의사회/헌혈 5. 함께 지키자 ·생명을 구한 안전운전
	자연 생명					7. 자연사랑 ·되살아난 양재천/반딧불이를 되살리자/우포늪 이야기
	동물·식물 생명			2. 내 힘으로 ·돕어주어가는 갈매기		2. 소중한 생명 ·슈바이처의 동물 사랑 ·생명보호활동
생명 존중	인간 존중		1. 깨끗한 생활 ·달라진 용일이 ·건강의 소중함			9.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민족 ·타키에 간 한국 구조대 8. 평화 통일의 길 6. 아름다운 사람들 ·장애인의 처지 체험하기 ·고통과 눈물을 닦아준 테레사 10. 평화로운 지구촌 ·난민촌 아이들/ 전쟁이 싫어요.
	생명경외					2. 소중한 생명 ·슈바이처의 동물 사랑
	홍익인간				3.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불교의 자비					2. 소중한 생명 ·질신이야기/ 생명 나눔 운동
	전통 윤리				2. 절제하는 생활 ·마법의 실/왕과매	1. 성실한 생활 ·밭에 묻힌 보물/
생명 보전 및 대책	동물 보호		3. 자연은 내 친구 ·철새들의 보금자리에 불이 났어요 ·보고 싶은 동물들 어디로 갔나요?			
	식물 보호		3. 자연은 내 친구 ·가족 나들이 ·우리 강산 내가 보호			7. 자연사랑 ·나무를 심자
	생태계 보호		3. 아껴 쓰는 생활(1학기) ·물러 받아 쓰는 좋은 전통 ·물 전기 아껴 쓰기 3. 자연은 내 친구 (2학기) ·버려진 음식/지구가 열이 나고 아프대요/병들어 가는 지구/유조선이 침몰하면 ·환경 지킴이 푸름이처럼 실천하기		6. 나와 우리 ·빈티/주한이네 마을/주차장 ·샘마을의 미루나무	7. 자연 사랑 ·산성비는 해로워/스모그현상/구멍뚫린 오존층/지구가 땀을 흘려요.

34) 진교훈(1998), 전계서, p.226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을 토대로 생명존중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명에 대한 개념을 자연에 까지 확대시켜 생명의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현대 사회는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동식물, 그리고 자연물의 가치도 포함한 광의의 생명관으로 변화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즉 모든 생명은 외경하고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며,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의식을 갖는 것, 인간의 윤리적 의무의 범위를 자연에게로 확대하는 일이다.

현대는 생명관을 확대한 생명존중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즉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동식물, 그리고 자연물의 가치도 포함한 광의의 생명관으로 변화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 파괴, 환경 파괴, 우주오염을 막아야한다는 전 지구적인 요청이기도 하다.

둘째, 지금까지 생활영역의 확대 기준에서 벗어나 주제 중심의 내용 구성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개인 생활 영역에서 생명 존중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 보호’를 통합하여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전체 생명문제를 다루어져야 한다.

인간은 전적으로 생명보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특히 지난 300년간 가장 효율적인 과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자연을 무참히 정복하여 왔다. 21세기의 생명윤리의 중심과제는 지구 생명을 소생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탈인간중심적인 새로운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의 생명교육을 위한 생태문화의 이해와 자연과 인간의 동일성의 신뢰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셋째, 앞으로의 생명 존중 교육은 인간 중심의 생명 개념을 확대하여 자연속의 인간, 그와 같은 권역에서의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것, 삶과 죽음이 모두 생명체의 소중한 영역이라는 인식 위에 삶과 죽음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태어나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모두가 생명 있는 것이라면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삶뿐만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도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진술은 권리 (자신을) 존중 받을 권리를 강조하면서 책임을 아울러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타인 존중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소중히 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아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최근에는 생명 공학으로부터 야기되는 윤리적 문제, 특히 인간복제, 인간 배아 연구와 활용 및 복제, 유전자 조작 및 치료의 허용 범위, 중간 교잡 해위, 동물의 유전자 조작과 변형의 연구 인간 유전정보의 활용과 보호 등이 의료 생명윤리학에서 중점적으로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 윤리는 넓은 의미에서 종전의 환경 윤리 및 생태 윤리와 의료 윤리를 포괄하여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을 망라해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들이 도덕 수업에서 생명존중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학생들이 생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실감하고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생명존중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 생명윤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게 하는 일에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생명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⁵⁾ 앞으로 생명에 관한 과학적 탐구의 결과가 인간 삶의 실천적인 측면에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 학생들은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 앞에서 가능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윤리 기준에 근거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특수한 도덕적 상황에 지혜롭게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윤리는 학생들에게 직관에 호소하여 자연보호의식을 일깨워주는 일에서 더 나아가 환경윤리를 위한 존재론적 논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존재론적 논의는 자연의 존재와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강화시키면서, 인간의 윤리적 위무의 범위를 시공간으로 확대하여 자연을 인간 삶의 조건으로 들여야 한다.

35) 강두호(2003), 전제서, p.147

3. 교수-학습 전략

인간 이외의 자연환경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생명존중교육은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전략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교사는 학생들이 급우들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고 다시 존중과 배려를 급우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인 교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도덕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또한 급우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고 그 도덕적 의미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외의 사람들과 여타 자연환경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배려하고 배려 받으며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고 사려 깊은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자기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³⁶⁾

둘째, 자연환경³⁷⁾과 관련된 가치갈등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한 찬반토론 학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간의 이익관심과 자연적 존재들의 이익관심이 충돌할 경우,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 종과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능력을 가진 고등동물의 이익관심이 충돌할 경우 그리고 개별적인 동식물의 생존과 생태계 보호라는 명분이 서로 충돌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가치 갈등 사례들을 제시하여 토론하게 하며 자연스럽게 인간과 자연환경의 공생을 추구할 수 있는 생명존중의식이 함양될 수 있다. 또한 동강의 보전이 생태계의 보전인지 휴양지의 보존인지, 채식주의는 고수되어야 하는지, 과학·의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실험은 정당한지, 지속 가능한 개발은 인간중심적 발상인지, 생태 중심적 발상인지 생명존중의식과 관련하여 토론하게 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가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학생 자신의 생태학적 세계관 및 가치관의 재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가치갈등의 문제사태에 직면하게 되면 아무런 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환경보전을 외치거나 경제적 합리성³⁸⁾에 의해 문제

36) 노희정(2003), 전계서, p.189

37) 자연환경은 인간 이외의 동물, 식물, 무생물 등의 개별적 자연존재들과 전체로서의 종, 생물공동체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사용 된다.

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이 생명공동체까지 포함된 도덕공동체 개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로 하여금 생태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생태학적 감수성이 심미적 감수성을 계발 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체험학습이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덕과 교육의 특성상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직접적인 체험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학교 꽃밭, 교실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자연친화적인 영화, 시, 수필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선정하여 가르침으로서 간접적으로나마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감성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부여를 통하여 삶과 죽음이 모두 생명체의 소중한 영역이라는 인식 위에 삶과 죽음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생명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38) 경제적 합리성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장 지배적인 합리성으로서 효율성의 계산에 기초하고 있다.

VI. 주제별 생명존중 교육 방안

1. 주제선정 기준

인간에게 ‘생명’이라는 주제는 그 어느 가치 보다 우선한다. 전 인류의 삶, 지금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는 물론이고 미래 생명터전까지 위협하는 위기의 시대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생명존중교육이다. 인간 중심의 생명 개념을 확대하여 자연속의 인간, 그와 같은 권역에서의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것과 자연의 가치를 중심으로 생명존중 주제를 선정하였다.

생명의 가치 및 생명 존중 범위를 간접적이거나 느낄 수 있는 주제로는 ‘자연과 대화’ ‘나의 나무 정하기 활동’, ‘생명의 소중함’을 두었다. 자연계 중에 존재하는 인간 이외의 것과 대화 하는 활동을 통하여 자연에 대하는 따뜻한 마음, 동식물에 대한 상냥한 마음, 자신 이외의 것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 등이 생겨나도록 하였다.

‘나의 나무 정하기’ 활동은 어린이들의 일상생활 공간인 학교 교정이나 집 주위에 있는 많은 나무들 중 한 그루를 선택하여 자신만의 이름도 붙여 보고 관찰하여 나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함께 가지면서 그 나무를 돌보는 일까지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 날마다 그냥 지나쳤던 나무의 특성을 나무 모양, 나뭇잎, 꽃, 나무껍질 등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생명체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게 하였다.

또 ‘생명의 소중함’에서는 생명은 그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다는 것을 알려 주고 오늘날 생명 존중의 대상이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 대자연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조상들이 생활 속에 나타난 생명존중을 생각 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조화와 공존의 자연관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고래밥 놀이,’ ‘두꺼비의 생존권’ 주제를 두었다. ‘고래밥 놀이,’는 인간에게 자연을 이용할 권한을 주었을 때 자연에 대한 인간이 어떤 태도가 필요하며, 자연의 정화능력과 그 능력의 한계 즉 자연은 오염되어도 스스로를 복구하는 능력이 있음과 반면 그 복구 능력에 한계가 있

음을 알게 하여,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를 자각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자연 살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꺼비의 생존권’은 자연과 생태계의 생명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 바람직한 삶은 자연과 생태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의 가치를 긍정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환경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종 다양성과 자연 생태계 생명 존중 및 현실적 강자로서의 인간 역할에 대한 반성의 한 방법으로 원홍이 두꺼비 생존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생명보전 및 대책’ 영역에서는 ‘생태 공원의 필요성’, ‘저어새의 생태’의 주제를 두었다. ‘생태 공원의 필요성과 현황을 살피게 한다. 따라서 의미 있게 ‘자연과 만나기’ 위한 현실여건은 불충분하고 오히려 도시는 팽창하며 내부 및 외부의 자연과 숲을 파괴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하여, 친환경생태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 내 생태공원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함을 알도록 하였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가치갈등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생태공원은 왜 필요한가’ 인간의 이익관심과 자연적 존재들의 이익관심이 충돌할 경우로는 ‘두꺼비 생존권’ 활동을, 또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 종과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능력을 가진 고등동물의 이익관심이 충돌할 경우에는 ‘생태계 보호’에서 저어새의 생태를 알아보는 활동을, 그리고 개별적인 동식물의 생존과 생태계 보호라는 명분이 서로 충돌할 경우와 관련된 활동으로 ‘조화와 공존의 자연관’에서 ‘고래밥 놀이’를 제시하였다.

2. 주제별 프로그램

이상의 내용을 정리 해 보면 <표-3>와 같다.

<표-3>생명존중 프로그램

영역	주 제 명	세부 활동 내용	교과관련단원 <학년 학기 단위>
생 명 의 가 치	1)자연과 대화	· 자연물에 마음속 말로 야기 걸기	4-1-2
	2)생명의 소중함	· 자기존중의 의미 알기 · 감나무의 까치밥	3-2-3
생 명 존 중	3)생명체의 변화	· 내 나무를 정하고 꾸준히 관찰	5-1-2
	4)조화와 공존의 자연관	· 이스터 섬의 교훈 · ‘고래밥 놀이’하기	6-2-7
생 명 보 전 및 대 책	5) 생태계 보호 (저어새는 내 친구)	· 저어새의 생태 · 저어새 만들고 인형극하기	3-2-3
	6)생태공원은 필요한가?	· 생태공원의 개념과 필요성 · 생태공원 사례 알기	5-2-6
	7)멸종 위기의 생물들	· 멸종 위기의 생물과 원인 · 천성산 도롱뇽 소송이야기	3-2-3

주제 1 : 자연과 대화

1. 주제설정 이유

이것은 자연계 중에 존재하는 인간 이외의 것과 대화한다는 실습입니다. 대화는, 마음속에서 언어로 고쳐 실시합니다. 이 실습을 하는 것에 의해 자연에 대해서는 따뜻한 마음, 동식물에 대한 상냥한 마음, 자신 이외의 것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 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2. 수업 목표

- ㉠ 자연과 대화하는 것에 의해 풍부한 인간성과 감성을 기른다.
- ㉡ 자기 이해를 깊이 한다.
- ㉢ 자연을 소중히 하고 동식물을 아끼는 마음을 갖는다.

3. 자료

- ㉠ 자연과 대화 기록지(활동자료1)



4. 수업 안

<도입>

- ㉠ 기록지를 나눠주고, 혼자서 자연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활동방법을 안내한다.

<전개>

- ㉠ 이 활동은, 반드시 혼자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 ㉡ 활동 장소에서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유로운 방향으로 걸어보세요.
- ㉢ 주변의 자연에 마음을 열고, 조용히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잠시 있으면 인간 이외의 뭔가가 당신을 향해 이야기 걸어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화초일지도 모르며 나뭇잎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작은 벌레일지도 모르며, 돌이나 바위일지도 모릅니다.

- ④ 만약 아무 것도 이야기를 걸어오지 않는 것 같으면, 자신이 먼저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인간 이외의 것에 이야기를 걸어 주십시오.
- ⑤ 그리고 나서 그것과 마주 대하고 이야기를 해 보아 주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당신으로부터도 이야기를 걸어 보십시오. 당신과 그것과의 사이에 언어를 주고받아 보십시오. 자신의 진짜 기분을 털어놓으면서, 마음속에서 언어로 고쳐 천천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⑥ 시간은 20분간입니다. 시간은 선생님이 알려줄 것이며 그 때까지 자유롭게 이 활동을 즐겨 주십시오.

<정리>

- ㉠ 자연물과 대화하면서 든 생각 나누기



<활동자료1>

자연과의 대화 나누기

학 년 반	학년 반	이 름	
날짜	년 월 일	장 소	
대화 대상		내가 정해준 이름	
관찰 한 내용	관찰한 내용		관찰 그림
대화 내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small>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small>		

주제 2 : 나의 나무를 정해요.

1. 주제설정 이유

이 활동은 어린이들의 일상생활 공간인 학교 화단이나 집 주위에 있는 많은 나무들 중 한 그루를 선택하여 자신만의 이름도 붙여 보고 관찰하여 나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함께 가지면서 그 나무를 돌보는 일까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고자 한다. 또 날마다 그냥 지나쳤던 나무의 특성을 나무 모양, 나뭇잎, 꽃, 나무껍질 등으로 구분하여 관찰하면서 생명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2. 수업 목표

- ㉠ 생명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생명의 변화를 이해한다.
- ㉡ 자연을 소중히 하고 동식물을 아끼는 마음을 갖는다.

3. 자료

- ㉠ 관찰 기록지



4. 수업 안

<도입>

- ㉠ ‘나무는 좋다’, ‘씨앗은 무엇이 되고 싶을까?’ 김순환글/ 돌베개어린이 책 읽어 준다.
- ㉡ 나무가 아니더라도 화단이나 교실 안의 화분에 있는 꽃이나 풀을 정해서 꾸준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진개>

- ㉠ 나무 한 그루를 정하고 이름을 붙인다.
- ㉡ 나무의 새싹이 나올 때부터 잎이 질 때까지 잎의 모양, 색깔, 크기, 나무의 모

양, 꽃, 나무껍질의 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③ 이 때 사진이나 그림, 글로 표현하도록 한다.

④ 식물의 잎, 뿌리, 줄기, 열매를 주워서 식물 모자이크 꾸미기

⑤ 학년말에 가서 관찰 기록 장을 바탕으로 발표회를 갖는다.

<정리>

⑦ 나무를 껴안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나무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편지를 쓴 어린이에게 보내어 나무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주제 3 : 생명은 왜 소중한가?

1. 주제설정 이유

생명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오늘날 생명 존중의 대상이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 대자연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이 절대성과 생명 존중의 범위 확대라는 명제를 선언적 수준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연결 시켜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2. 수업 목표

- ㉠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생명 존중의 출발점이 자기존중임을 이해한다. .
- ㉡ 모든 인간과 자연이 생명존중의 대상임을 깨닫고 이를 실천한다.

3. 자료

- ㉠ 우리 조상들의 생명 존중 전통(활동자료 3),(활동자료4)
- ㉡ 자아 존중감 검사지(활동자료2)

4. 수업 안

- ㉠ 모둠별 수업을 전개한다. 4-5명의 학생으로 모둠을 짠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둠장을 뽑도록 한다.
- ㉡ 각각의 주제를 제시하고 모둠별 토의를 진행하게 한 뒤, 발표한다.

<도입>

- ㉠ 생명을 소중함을 느낀 경우가 있었던 경험나누기
 - 구조하는 모습, 동물의 세계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모습 등 자료화면 제시
 - 반대로 생명을 경시하는 잘못된 모습에 관한 자료를 보여준다.

㉞ 생명존중 개념 알기

- 생명이란 무엇이며 명의 신비로움과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게 취급받아야 할 대상임을 느끼게 한다.
- 교실 화분의 예 : 생명력이란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있어 끈질긴 것이며 동시에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인식시킴으로 인간의 생명에서 시작하여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우리 조상들의 생명 존중 전통을 이해한다.

<전개1>

한 모둠이 다음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며, 주제가 고루 돌아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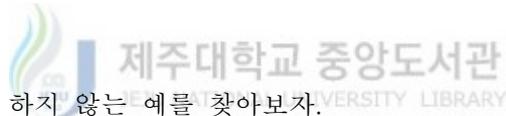
- ㉟ 나의 생명에 대하여 생각하기(활동 자료 2)
- ㊱ 자기 존중의 의미 생각해보기
- ㊲ 자기 존중의 예를 찾아보자

<전개2>

- ㉟ 자기 존중감 검사지 작성하기
- ㊱ 자기 존중 자성 예언하기
- ㊲ 우리 조상들의 생명 존중 전통(활동자료3)을 읽고 조상들의 생명 사랑 전통을 되새기며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정리>

- ㉟ 자기 존중을 하지 않는 예를 찾아보자.
- ㊱ 고수레 활동하기.



<활동자료2>

· 자아 존중감 검사지(월일 _____, 이름 _____)

자신이 항상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면 '예'에 ○표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에 ○표 하십시오. 여기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그대로를 대답해 주십시오.

문항	질 문 사 항	예	아니오
1	지금의 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2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		
3	만약 가능하다면 나 자신에 대하여 바꾸고 싶은 것이 많다.		
4	나는 어떤 일이든지 쉽게 결정할 수가 있다.		
5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사람이다.		
6	나는 집에서 자주 화를 낸다.		
7	나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8	나는 꽤 주위의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9	나는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잘 이끌린다.		
10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대하여 지나친 기대를 하신다.		
11	때때로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다.		
12	여러 가지 고민이 뒤얽혀서 자주 나의 일을 방해한다.		
13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		
14	나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당황할 때가 자주 있다.		
15	친구들에 비해 나는 너무 열등하다.		
16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곧 그것을 말한다.		
17	나의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1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한다.		
19	나는 학교에 갈 의욕을 자주 잃어버린다.		
20	나는 무슨 일이든지 힘들어하거나 피로워하지 않는다.		
21	나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의 일치하는 수가 많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

(활동자료3)

< 우리 조상들의 생명 존중 >

- 감나무의 까치밥³⁹⁾

준호는 감을 무척 좋아합니다.

시골 할머니 댁에 다니러 온 준호는 마당 한 구석에 먹음직스럽게 달린 감을 보고 군침이 꼴깍 넘어 갑니다.

“할머니, 감나무에 아직 다지 않은 감이 있어요. 우리 저 감 다서 먹어요.”

“허허, 녀석! 준호야, 저 감은 일부러 따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란다.”

“왜요.”

“저건 추운 겨울에 마을로 내려와 먹이를 찾는 까치들이 먹을 거란다. 눈이 많이 오면 먹이를 찾기가 힘들거든.....”

“아하, 그렇군요.”

- ‘고수레’

“준호야, ‘고수레’ 라는 말 들어 본 적이 있니?”

“ 할머니 그게 뭐예요.”

“ 제사를 지내고 나서 ‘고수레’ 라고 하며 담벼락 밑에 음식을 사방으로 던지기도 하고, 옛날 어른들은 밭에서 새참을 먹을 때도 먼저 ” 고수레“ 하면서 밥을 들로 조금 던지고 나서 먹었다. 고수레 전통은 원래 우리 주변을 다스리는 땅의 신인 지신이나 물의 신인 수신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는 데서 시작 되었다. 또 집 근처 나쁜 잡귀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집안의 안녕을 빌기도 하였지.”

‘고수레’ 소리에 담긴 또 다른 뜻

- 팔죽을 저을 때 눌지 않고 골고루 잘 익으라는 주문으로서의 ‘고수레“

- 끓는 물에 뿌려 흰 떡을 반죽할 때 물이 골고루 잘 가라고 하는 인사말

- 남부지방에서는 ‘고시래’ 라고 함.

39) 권은주(2003), 「불교 생명존중 유아교육프로그램」, 양서원, p.48

-우리 조상들이 주변 동물들에 대한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알려 주는 전통 예를 찾아보자

-콩 농사를 할 때 세 알씩 심는데 한 알을 공중의 새 먹이 이고, 한 알은 땅 속의 벌레 먹이, 한 알은 새로운 농사를 위한 농부의 뭉이라고 생각하는 농사전통

-아침거미는 기쁜 일이 올 징조라고 잡지 않았던 전통

-방안의 불개미는 재물을 가져다준다 하여 살생을 금하였던 전통

-마을에 산짐승이 해를 끼치더라도 산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던 전통

-겨울철새들을 위해 벼 수확을 조금 남겨 놓았던 전통

- 고수레 관련 동시 감상하기

송 편



최병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보송보송한 쌀가루로

하얀 달을 빚는다.

풍년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늘신께 땅신께

고수레

고수레--하고

햇솔잎에 자르르 찌넌

달을 먹는다.

쫄깃 쫄깃한

하얀 보름달을 먹는다.

<활동자료 4>

조상들의 생명 존중,

1. 감나무의 까치밥을 읽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점이 무엇이라고 느꼈는지 써보자.

2. 고수레 전통 의식을 하고 난 후 느낌 글쓰기

고수레 의식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야생 동물을 생각하며 느낌 글을 써 보자.

주제 3 :조화와 공존 자연관

1. 주제설정 이유

인간에게 자연을 이용할 권한을 주었을 때 자연에 대한 인간이 어떤 태도가 필요하며, 자연의 정화능력과 그 능력의 한계 즉 자연은 오염되어도 스스로를 복구하는 능력이 있음과 반면 그 복구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를 자각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자연 살리기에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다.

2. 수업 목표

- ㉠ 인간의 이기심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 자연 보존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실천을 다짐한다.

3. 자료

- ㉠ 고래밥 (과자) , 도화지 6장
- ㉡ 읽기 자료-이스터섬의 교훈(활동 자료5)

4. 수업 안

- ㉠ 모둠별 수업을 전개한다. 4-5명의 학생으로 모둠을 짠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둠장을 뽑도록 한다.
- ㉡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하는 활동이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주어서는 안 된다.

<도입>

- ㉠ 활동 방법을 안내하고 반드시 규칙을 지키도록 한다.(활동자료4)
- ㉡ 활동 방법에 대한 의문 사항은 질문하기

<전개1>

- ㉠ 모듬원 끼리 먹는 양을 참견하지 않으며 원하는 만큼 순서대로 고래밥 먹기
- ㉡ 각 모듬은 고래밥 남은 개수 확인하고 도표 만들기
- ㉢ 2차, 3차 같은 방법으로 활동하기

<전개2>

- ㉣ 활동과 환경 문제 연관짓기
 - 고래밥을 왜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고 했을까?
 - 첫 번째와 여섯 번째 사람은 누구에 비유할 수 있는가?
 - 먹고 남은 개수만큼 다시 배포한 이유는?
- ㉤ 바람직한 자연관에 이야기나누기 :조화와 공존

<정리>

- ㉥ 이스터 섬의 교훈(활동자료2)을 읽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생각 해 보자.



<활용 자료 4 >

<고래밥 놀이 방법>

- 1)고래밥 : 각 모둠원수의 5배 정도 준비 한다.
- 2)각 모둠원 : 먹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먹는다.
- 3)먹는 순서 : 가위 바위 보로 1등 결정하고 다음은 1등 오른쪽 순으로 진행한다.
- 4)규칙 :① 1개씩만 먹자, 많이 먹지 마라 등 모둠원간에 말을 해서는 안 됨
② 진행 중 고래밥을 다 먹어버리는 모둠도 실격임
- 5)각 모둠원이 한번씩 먹고난 후에 남은 고래밥의 수만큼 고래밥을 재배포 한다.
(단 재배포의 개수는 처음 개수의 반이하로 제한한다.)

<생각 나누기>

- 1)고래밥을 왜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고 했을까?
인간에게 자연을 이용할 권한을 주었을 때 자연에 대한 인간 태도의 차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연과 다른 사람(후손 또는 약자)을 생각 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심만 채우는 사람과 자연과 다른
사람을 고려해 이기심을 억제하는 사람
※교사는 고래밥을 많이 먹은 사람이 반드시 자연을 많이 파괴하는 사람은 아님을 언급해주어야 한다.)
- 3)먹고 남은 개수만큼 다시 배포한 이유는?
자연의 정화능력과 그 능력의 한계가 있다. 즉 자연은 오염되어도 스스로를 복구하는
능력이 있음과 반면 그 복구 능력에 한계가 있다.
- 4)선정 기준은 무엇일까?
최우수 모듬 : 처음에 제공한 고래밥 개수에 가장 가까운 모듬
(이유: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인간을 위해 적절히 사용한 모듬임으로)
※교사는 고래밥을 너무 아껴 처음보다 과도하게 많은 모듬은 자연은 보존하였으나 인
간을 위해 자연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 모듬임을 설명한다.
노력모듬 : 활동 초반기에 먹고 남은 고래밥 갯수가 반 이하였으나 활동 후반기에 갈
수록 조원 각자가 스스로 이기심을 억제하여 고래밥 개수를 회복한 모듬
(이유: 자연 파괴를 자각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자연 살리기에 노력하였음으로)

이스터섬의 멸망40)

1. 이스터섬의 전성기

폴리네시아인들은 서기 500년경에 이중으로 된 넓은 카누를 타고 식물, 동물과 음식을 싣고 이스터섬에 도착했다. 정착민들은 중앙의 공동 경작지를 중심으로 작은 농가 군을 이루며 섬 전체에 흩어져 살았다. 이들의 주식은 고구마인데 단조롭지만 영양가가 있고 무엇보다 고구마 경작에 시간이 많이 들지 않아 여가시간이 많았다.

이 여가시간에 이스터섬 주민들은 정교한 의식과 기념비 제작에 몰두했다. 각종 의식을 위해 수백 개의 석조대, 깊게 양각한 바위 조각들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세워졌다. 석상들은 하지, 동지, 춘분, 추분에 맞춰진 고도로 천문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아 섬 주민의 지적수준이 꽤 높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2. 석상을 경쟁적으로 제작하는 이스터섬 사람들

높이 6M가 넘고 무게는 수십 톤이 넘는 거대한 석상은 묘지, 조상숭배, 죽은 족장을 추도하기 위한 기념물로 이용되었다. 석상들은 막대한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석상들은 채석장에서 남자의 상반신에는 다른 채석장에서 캐어 온 10톤 가량의 붉은 돌이 '모자'처럼 얹혀 있다. 조각은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었으나 가장 힘든 일은 6m 높이에 무게가 수십 톤이나 되는 석상들을 섬을 가로질러 운반하여 제단 꼭대기의 세우는 일이었다. 이스터 섬의 분열은 석상을 만드는 방법 차이에서 시작되었다. 석상의 귀를 크게 만드느냐 작게 만드느냐를 놓고 '큰 귀'족과 '작은 귀'족의 대립은 점차 심화되었고, 이들은 서로 자신들이 신념의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석상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다.

3. 석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파괴되는 자연

18세기 유럽인들이 처음 이 섬에 갔을 때는 섬 전체에 나무라고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꽃가루 타입 분석을 이용한 최근 연구에서 초기 이스터섬에는 넓은 삼림을 비롯하여 울창한 식물이 자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가 점점 늘면서 농경지를 만들고 난방과 조리를 위해 가재도구를 만들기 위해, 집과 카누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어 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섬 주변의 제단까지 엄청난 무게의 석상들을 운반하기 위한 통나무 받침이었다. 이스터 섬에는 수레를 끌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 등치를 롤러로 삼아 채석장에서 만들어진 석상을 사람의 힘으로 섬을 가로질러 제단(아후)까지 돌들을 운반했다. 섬의 인구는 점점 늘어났고 시간이 갈수록 씨족 집단의 수가 증가해 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짐에 따라 목재의 필요량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다. 16세기에 이르러서는 600개의 거대한 석상들이 건설되고 조각되었다.

40)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모임(2000), 「녹색교실」, p.4-7

4. 이스터섬의 종말

1500년경부터 나무가 부족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집짓기를 포기하고 동굴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한 세기 후 목재가 모두 사라져버린 뒤에는 남아있는 자원만으로 생활해야 했다. 카누도 만들 수 없었고 대신 긴 여행이 불가능한 갈대 보트가 고작이었다. 그물의 재료인 꾸지나무(옷감의 재료이기도 했다)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고기잡이도 어려워 졌다.

또한 가뜩이나 동물 분뇨가 부족해서 작물에 빼앗긴 영양분을 보충 할 길이 없던 토양도 삼림 황폐로 심하게 손상되었다. 그 결과 작물수확이 감소했다. 점점 감소하는 자원만으로는 7000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섬의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갔다.

1600년 이후 이스터 섬 사회는 더욱 원시적인 상태로 쇠퇴해 갔다. 나무도 없고, 따라서 카누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외딴 섬에서 갇혀서 스스로 자초한 환경 파괴의 결과를 피할 길이 없었다. 더 이상 석상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은 흔들리고 줄어드는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노예제도가 상습화되었고 구할 수 있는 단백질이 부족해짐에 따라 식인 풍습까지 생겨났다.

전쟁의 주목적 중 하나는 상대편 부족의 아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몇 개만이 묘지로 남았을 뿐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너무 커서 파괴할 수 없는 석상들은 무너뜨렸다.

결국 갑자기 반이 넘는 석상들을 채석장 주변에 미완성으로 남겨둔 채 이스터섬은 갑자기 붕괴해 버렸다.

< 생각해 보자 >



1. 이스터섬의 사람들이 석상을 만들 수 있었던 여가 시간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스터섬이 내린 사람들에게 대한 혜택 때문인데 무엇인지 써라.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자연이 우리에게 내린 혜택을 찾아보자.
2. 이스터섬의 자연 생태계의 평형이 깨진 것은 어떤 이유인가? 왜 자연보존이 중요한가? 우리 주위에서 자연 생태계의 평형이 깨진(깨지고 있는) 경우와 자연을 보존한(보존하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자.
3. 만일 여러분이 이스터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스터섬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는가?
4. 이스터 섬 사람들은 거대한 석상을 만들어 숭배하여 자연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다. 그러다 지나치게 우상화하여 ‘큰 귀’를 숭배하는 부족과 ‘작은 귀’를 숭배하는 부족이 서로 경쟁적으로 석상을 건설하려 했다. 그러나 석상을 건설하는 도중에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여 스스로 멸망하였다.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으로 평안을 찾으려 한다. 이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를 들어보아라.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토의해보자.

주제 6 : 저어새는 내친구

1. 주제설정 이유

인간의 바람직한 삶은 자연과 생태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의 가치를 긍정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환경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종 다양성과 관련하여 멸종 위기의 동물의 한 종류인 저어새의 생태를 알아보고 자연 생태계 생명 존중의미의 중요성과 인간의 역할을 중요성을 안다.

2. 수업 목표

㉠ 멸종위기에 처한 저어새에 대해 알아보고 저어새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3. 자료

㉠ <<http://bfs.kfem.or.kr/>> 동영상

㉡ 저어새 편지글(활동자료 10), 만들기 도안

4. 수업 안

<도입>

㉠ <<http://bfs.kfem.or.kr/>>에서 ‘저어새 제주에서 월동하다’ 동영상 보기

<전개>

- ① 저어새에 대해 알아보기
- ② 저어새로부터의 편지(활동자료10)
- ③ 저어새 만들기
- ④ 저어새가 살 만한 공간에 붙이기

<정리>

㉠ 저어새에 관해 공부한 느낌을 발표해보도록 함시다.

(활동자료10)

애들아, 안녕!

나는 저어새라고 해 나는 얇은 물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물을 휘저어서 잡아서 저어새라고 해.

그래서 다른 새랑 다르게 부리가 스푼 모양이야.

참 특이하게 생겼지? 나는 발과 부리는 검은색이고 다른 부위는 흰 색이야. 그런데 나는 요즘 기분이 안 좋아.

예전엔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1200여 마리 뿐이야. 그리고 한국에서는 200마리 정도야. 왜 그럴까? 내 말에 귀 기울여 줄래.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 속에 쓰레기랑 생활하수 또, 음식물쓰레기 들을 마구 버려서 물이 오염되고 있어. 우리가 설 수 있는 쉼터도 점점 줄어들고 물 속에 있는 먹이가 사라지고 있어. 나는 정말로 먹이가 많은 서해안 갯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야. 나는 이 곳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날아왔으면 좋겠어. 나는 북한에도 날아간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일'의 새라고도 해. 통일이 되는 날 함께 만나자. 그럼 안녕

주제 4 : 생태공원은 왜 필요 한가

1. 주제설정 이유

자연을 멀리하는 생활양식이 깊어갈수록 질병 등 다양한 문제현상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미래세대인 학생들은 친환경생태적인 삶을 그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그들에게 자연을 접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미 있게 ‘자연과 만나기’ 위한 현실여건은 불충분하고 오히려 도시는 팽창하며 내부 및 외부의 자연과 숲을 파괴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하여, 친환경생태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 내 생태공원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2. 수업 목표

- ㉠ 생태공원의 의미를 이해하며

3. 자료

- ㉠ 잘 조성된 생태공원 사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길동자연생태공원 <http://parks.seoul.go.kr/kildong/>
우포늪사이버생태공원 <http://www.upo.or.kr/index.asp>

4. 수업 안

- ㉠ 모듈별 수업을 전개한다. 4-5명의 학생으로 모듈을 짬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듈장을 뽑도록 한다.
- ㉡ 각각의 주제를 제시하고 모듈별 토의를 진행하게 한 뒤, 발표한다.

<도입>

- ㉠ 경험 나누기
 - 소풍, 자연을 접해 본 경험, 느낀 점, 바람직한 모습 등
- ㉡ 생태공원 개념 알기(활동자료6)

<전개1>

한 모둠이 다음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며, 주제가 고루 돌아가게 한다.

- ㉠ 제주도 공원 현황,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점과 문제점을 정리해보자
- ㉡ 학생들이 자연을 접하기 위해 어떠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 ㉢ 자연을 체험하기 위한 현실은 어떠한가?

<전개2>

- ㉠ 학생들에게 생태공원은 왜 필요한가?
- ㉡ 생태공원 설계도를 만들어보자.
- ㉢ 생태공원에서 만나고 싶은 동식물, 하고 싶은 일 상상해 보자

<정리>

- ㉠ 보다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 정리

(활동자료 6)



◆ 생태공원

1. 생태적 요소를 주제로 한 관찰, 학습 측면에서

자연관찰 및 학습을 위하여 공원녹지를 생태적으로 복원, 보전하며, 이용자들에게 식물, 동물, 곤충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성장,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도록 제공된 장소, 즉 작은 생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접근,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을 말한다.

2. 생태원리에 입각하여 조성측면에서

도시속에 야생생물의 서식처를 도입하되, 생태계 질서(종 다양성, 생태적 건전성, 지속가능성 등)에 의해 스스로 유지되도록 조성된 공원으로 건강한 야생경관을 도입하고, 최소에너지 투입에 의해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성된 공원으로 생태환경적으로 타 공원에 비해 비교우위성에 존재가치를 두고 조성된 공원을 말한다.

◆ 제주시의 공원 및 자연 관찰학습 할 수 있는 곳

신산공원, 레포츠공원, 삼부공원, 별도봉, 한라수목원, 등

주제 5: 두꺼비 생존권

1. 주제 설정 이유

자연과 생태계의 생명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간의 필요와 소위 경제성에 의하여 손쉽게 가격이 매겨지고 존재 여부가 결정된다. 인간의 바람직한 삶은 자연과 생태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의 가치를 긍정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환경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생태계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으로 인간사회 내에서도 손쉽게 재연된다. 종 다양성과 자연 생태계 생명 존중 및 현실적 강자로서의 인간 역할에 대한 반성의 한 방법으로 두꺼비 생존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2. 수업목표

- ㉠ 종 다양성과 공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 ㉡ 원흥이 두꺼비의 생존권이 왜 필요하며 중요한지 알며, 두꺼비를 지키기 위해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필요한 개념 및 자료

- ㉢ 두꺼비에 대한 이해 : (활동자료 7)
- ㉣ 생물 종 멸종관련 통계(활동자료8))
- ㉤ 천성산 도룡뇽 소송

4. 수업 안

<도입>

㉠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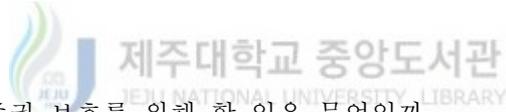
- 자연 생태계의 동식물도 생존권이 있을까?
- 생존권을 부정하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 가치를 결정하였을 때 나타날 현상은 무엇인가?

<전개>

- ㉠ 생물 중 절멸과 관련한 데이터, 자료 제시
- ㉡ 생물 중 멸종에 대하여
 - 원인 : 인간 이익을 위한 무분별 개발, 파괴
 - 문제 : 다양성 훼손,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도 위협
 - 의미 :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 폭력
- ㉢ 원홍이 두꺼비 생존권에 대하여
 - 의미와 가치 : 다양성과 공존
 - 바람직한 모습 : 생존권 보호
 - 유사한 사례 : 천성산 도롱뇽 소송 소개
 - 처해있는 현실 : 개발이 진행될 경우 생존권 보장 안됨
- ㉣ 무엇을 어떻게 할까
 - 인간(나)의 역할
 - 개발에 대한 의문, 지속가능한 개발

<정리>

- 두꺼비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할 일은 무엇일까



(활동자료 7)

1 두꺼비의 이름에는 땅과 물이 있다.

15세기 문헌에는 '두터비' 또는 '둔거비'로 나온다. 제주도 방언에 개구리를 '개비'라고 한다. 매뚜기과의 하나로 방아개비(방아개비)가 있다.

위의 세단어를 보면, 둔, 방아'의 관형어와 '거비, 개비, 개비'의 공통어로 합성된 말임을 알 수 있다. '둔'과 같은 말은 '두터지'에서와 같이 땅이나 흙의 뜻을 지니므로 땅이나 흙에 있는 '거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방아개비는 방아 찧는 시늉을 하는 '개비'라는 것이다. 그리고 개비의 ' '은 물의 뜻을 지니는 [江]의 ' '과 일치하므로 물에 있는 '개비'이다. 그리고 두꺼비를 한자로 쓸 때 '섬(鱗)'이 되는데 이는 '하늘을 바라보는 동물'로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는 모습을 뜻한다고 보겠다. 그래서 '둔'은 '둔다'의 '숫다'의 성질도 있다고 해석된다.

두꺼비는 물이나 땅을 상징하거나 몸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두꺼비가 물과 땅이라는 음(陰)과 깊은 관련이 있고 우리 주변의 생명과 터전과 상통하는 의미로써 중요한 단서가 된다.

2 달에는 두꺼비가 산다.

중국 신화에는, 영웅 예의 아내 항아(姮娥)가 약을 훔쳐 먹고 달로 도망가, 미운 두꺼비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천제의 아들인 열 개의 태양(까마귀) 중에서 아홉을 쏘아 죽여(지금은 하나만 남음) 천제의 미움을 받은 예는 인간 세상에 남게 되자, 서왕모에게서 승천할 수 있다는 선약(仙藥)을 구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내 항아는 그 선약을 혼자 다 먹고서 달 도망쳤다. 그 후 달에 도착한 항아는 두꺼비로 변했다고 한다. 그래서 달에는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것으로 두꺼비는 여인의 화신이자 그 영혼이고 정령이다. 달과의 관계에서 기후, 조수(潮水)의 조절자임을 암시한다. 수륙을 왕래하는 속성에서 일찍부터 물과 관계되는 동무로 간주되고, 영특한 동물에 비유되었다. 이다.

이와 같은 중국 신화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두꺼비는 달의 정령이자 달 자체를 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두꺼비가 세상에 나타나면 변화가 일어난다.

삼국사기 등에는 두꺼비가 이상 행동을 해서 일어난 몇 가지 사실을 들고 있다. 이것은 두꺼비의 예지와 신령스러움에 대한 신뢰가 나라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암시한다.

신라 애장왕 10월 6월에 벽사(碧寺)의 두꺼비가 뱀을 잡아먹었다. 그 해에 왕의 숙부 언승(彦昇)과 아우 이찬 제옹(梯邕)이 병사를 이끌고 궐내로 들어와 왕을 시해하였다. 또, 백제 의자왕 20년 4월에는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였다. 그 해에 백제가 멸망하였다.

그리고 고구려 고분 벽화의 월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또는, 계수나무 아래에서 옥토끼가 불사약을 절구공이로 찧는 옆에서 두꺼비가 춤을 추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월상은 신라 시대 와당과 조선시대 불화(佛畵)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두꺼비는 연적(硯滴) 등으로도 만들어진 것

을 보면 두꺼비에 대한 우리 민중 정서가 친근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두꺼비의 성격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며 두꺼비의 예지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4 지킴이로서의 두꺼비는 부잣집에 산다.

두꺼비는 족제비, 구렁이, 돼지, 소 등과 함께 집지킴이 또는 재복 신으로 상징된다. 지킴이란, 한 집안이나 어떤 장소를 지키고 있는 신령한 동물 또는 물건을 뜻한다. 가신(家神) 또는 집안 수호신의 성격을 띠는데, 이 지킴이는 복을 실어 주는 것으로 믿고 있다. 두꺼비, 족제비, 구렁이 등 지킴이는 부잣집에 편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지킴이를 업(業)이라고 한다. 이는 부자인 집에는 쥐가 많기에 그런 것이거나 먹을 것이 많아 파리가 들끓어 그것을 잡아먹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렁이나 족제비, 두꺼비는 함부로 잡지 않았고 음식을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이는 두꺼비 등과 미물이라도 함부로 홀대하지 않고 같이 와 함께 상생하는 슬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5 두꺼비는 장수의 힘을 가졌다.

두꺼비는 그 모습의 징그러움에도 불구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목숨을 버릴지라도 옳음의 길에 서기에 과감한 행동을 보여주는 투사이거나 혁명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민간 설화에서 두꺼비와 관련된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네장터형 설화이다. 자기를 길러준 은인인 처녀가 괴물(지네 또는 구렁이)이 제물로 바쳐지자, 두꺼비는 은혜를 갚고자 괴물과 싸워 죽이고 자기도 죽으면서 보은한다는 설화이다. 이 이야기에는 마을의 오랜 인습의 폐해를 타파하는 소녀 영웅의 의지가 표상되었다. 즉, 두꺼비를 기르는 마음은, 참고 기다리며 자기를 희생하는 인고(忍苦)가 뒷받침되는, 동양적 영웅의 조용한 자기 개혁의 정신이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전래 동요는 ‘떡두꺼비같은 아들’이라는 말과 연관해 두꺼비와 아이들의 친밀한 관계를 시사한다. 신령스러운 힘의 저장처, 장생의 능력으로서의 두꺼비와 관련이 있다.

6 두꺼비는 동양 사상과 불교와 연관이 있다.

두꺼비는 벽사(邪)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 것은 불교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자장(慈藏)이 당(唐)에서 부처의 두골(頭骨)과 불사리(佛舍利) 100알, 부처가 입던 붉은 집사리는 3등분하여 황룡사와 태화탑(太和塔)에 나눠 두고, 일부는 가사와 함께 통도사(通度寺) 계단(戒壇)에 두었다.

그 후, 고려 때 안렴사와 지방장관이 단에 예를 하고 공손히 돌솥을 들어보니, 전날에는 구렁이가 석함 속에 있었고, 후일에는 큰 두꺼비가 그 속에 쪼그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두꺼비가 불보(佛寶)를 수호하는 영물로 받아들여 함부로 그 돌을 들어 보지도 않고 지켰다는 것이다. 어찌면 원흥사지터가 발굴된다면 두꺼비의 불보 수호 능력과 꾀를 같이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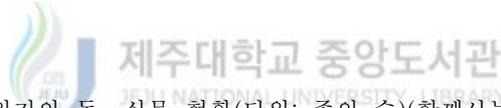
※ 위 자료는 한국문화사정사전(동아출판사)에서 발췌했으며 기타 몇 서적에서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활동자료8)

◆천성산 도롱뇽 소송 (참고 <http://cheonsung.com> /)

: 천성산 도롱뇽 소송은 멸종위기종인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지인 천성산을 고속철도 건설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활동 중 역사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 싸움이다. 소송의 당사자가 사람이 아닌 도롱뇽으로 도롱뇽을 지키고자 하는 ‘도롱뇽 친구’들이 소송을 이끌어가고 있다. 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생물을 법정에까지 이끌고 감으로서 판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생태 환경을 도외시한 무차별한 개발에 새로운 저항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무분별한 택지개발 및 개발지구에 권력기관인 법원과 검찰청의 입주로 위기에 처한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를 살리기 위한 청주 시민들의 싸움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원흥이 두꺼비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은 인간과 자연 생태의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며,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일깨워 주는 것이기도 하다.



◆. 우리나라 멸종위기의 동·식물 현황(단위: 종의 수)(함께사는 길, 2001. 2월호. 환경운동연합)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야생동·식물	합계
포유류 10	포유류 7	17
조류 13	조류 46	59
양서·파충류 1	양서·파충류 4	5
어류 5	어류 7	12
곤충류 5	곤충류 14	19
무척추동물 3	무척추동물 21	24
식물 6	식물 52	58
계 : 43	151	194

V. 결 론

21세기 인류 사회의 존망이 환경과 생명문제에 있다. 생명공학, 의료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 생활에 여러 가지 편리함을 준 반면에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생명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오늘날 자연보전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비록 인간 중심적이지만 생태계 보전, 생명체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장희익은 생명이란 “우주 내에 형성되는 지속적 자유에너지의 흐름을 바탕으로 기존 질서의 일부 국소 질서가 이와 흡사한 새로운 국소 질서 형성이 계기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하나의 유기적 체제”라 규정 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생명존중교육을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확대한 ‘삶 우주전체’를 교육의 장으로 바라보았다. 삶의 과정에서 관계되는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존재 가치들을 재조명함으로써 도덕 교육의 내용으로 끌어 들여 보았다.

생명존중교육은 자연과의 경험을 통하여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활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회적 능력을 형성하려는데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생태 중심 가치관의 관점에서 생명존중 교육목표로 도덕적 지식의 측면에서 생태학적 지식과 이해에 기초한 공생적 자연관의 확립, 도덕적 감정의 측면에서 생명존중 교육은 생태학적 감수성의 함양을 목표로 삼고 교수-학습 전략으로 도덕적인 교실 공동체를 만들기, 자연환경과 관련된 가치갈등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한 찬반토론 학습이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등 도덕과 교과와 관련하여 생명존중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학교 꽃밭, 교실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과의 대화 하는 활동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나마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감성적으로 느끼게 하는 활동,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범위와 관련된 활동을 선정하여 모든 인간과 자연이 생명존중의 대상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가치갈등의 문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가치 갈등 사례를 토론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인간과 자연환경의 공생을 추구할 수 있는 생명공동체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생명존중교육이 효율적이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초등 도덕과 교육의 기본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즉 현행 초등 도덕과 교육은 생명존중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도덕과 교육에서 자연환경을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도덕공동체의 개념에 따라 공생적 자연관의 확립, 생태학적 감수성의 함양, 자연보전의식의 생활화를 지향하는 생태중심의 가치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덕과 교육은 이원론적 세계관 및 가치관으로부터 전체론적 세계관 및 가치관으로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연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갈등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토론학습, 감수성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체험학습,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도록 돕는 활동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생명의 개념을 확대하는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자연은 인간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다. 고대로부터 지속되어온 동양의 생명관이나 최근 서양에서 논의가 활발한 유기체론에서는 인간과 자연은 분리될 수 없는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로 파악한다. 이제 인간은 물론 돌멩이 하나까지 소중한 생명체로 존중해야 하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앞으로의 생명 존중 교육은 환경교육과 인간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도덕교육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김은영(2001), “생명중심 환경윤리의 중요성”,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나은주 (2003), “불교 생명존중사상의 도덕과 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노희정(2003), “전체론적 환경윤리와 도덕교육”, 도덕 윤리과 교육 제16호
- 박병기(2001), “환경윤리 문제와 도덕교육”, 「윤리학과 윤리교육2」, 인간사랑
- 배영기(1997), “생명윤리에 대한 생태 문화적 연구”, 「윤리학과 윤리교육」, 경문사
- 배용철(2003), “홀스틱 생태소양학습 프로그램의 구안 적용이 아동의 생명존중 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성희(2002),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초등학교 수업모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병래(2004), “유아기 생명존중교육의 의미와 방향”, 열린유아교육연구 제9권 제1호
- 이영진(2004), “초등 도덕과에서의 인간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실천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임수(2003),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초등도덕교육”, 도덕교육학연구 4집
- 소광희(1993), “생명과 인간교육”, 생명교육총서 3집
- 심성보(1995), “생태윤리학과 도덕교육의 새로운 지평”, 도덕교육연구 7집, 도덕교육연구회
- 조용개(2001), “생태 중심 생명가치관 확립을 위한 환경윤리교육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환경교육 14권 1호
- 장정훈(2002),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 장희익(1997), “새로운 생명가치관의 모색”, 생명가치와 환경윤리학제간 연구보고서
- 황중환(1993), “생태윤리의 근거정립을 위한 자연관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인터넷 사이트>

1. <http://konect.ktu.or.kr/pds.htm> 환경과 생명을 전국 교사모임
2. <http://www.cheonsung.com/>
3. <http://parks.seoul.go.kr/kildong/길동자연생태공원>
4. <http://www.upo.or.kr/index.asp> 우포늪사이버생태공원
5. <http://bfs.kfem.or.kr/동아시아사이버저어새갤러리>

ABSTRACT

A Study on Elementary Moral Education about Respect for Life

Yang Yun-jeong

Major in National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eo, Jeong-hun

The advance in science and industry has fuele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social ills triggered by materialism and mammonism are getting serious more and more, which results in ruining not only human life but every creature and even the ecosystem.

The current way of thinking that focuses on human and economic growth and views nature only as the object of development makes a great contribution to putting all the creatures at stake.

Respect for human life is the basis of morality that is grounded in faith in human dignity. Basically, the matter of life is the most fundamental issue related to human beings, and life is the starting point and pivot of prerequisites for human existence.

Humans are born from nature, lead their lives in it, and then go back to it. However, today's environment is at risk because of exhausted resources resulting from indiscreet development and squandering, water pollution, air pollution, devastated forest areas and extinction of living things. People cannot survive without nature, and their lives are being threatened by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which is rooted in themselve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5.

If the perspective of life ethics is applied to the overall fields of life, the way of looking at nature is bound up with ethical duties, because human cognition is associated with not only nature but the dynamics of every creature.

Now, ethics about respect for life is a matter that concerns all the living things in the universe and their coexistence. People should be taught to value life from childhood, the early stage of human growth where they start to build their values about human, nature and the universe.

Those who learn about the preciousness of life through nature will be able to prize not only themselves but others.

As for value conflicts in conjunction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students should be educated to be community-minded, highly value life and seek after coexistence between them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n the course of having a discussion about relevant cases and what they ought to do.

Specifically, they should be taught in moral class to care about and respect the environment, to pursue harmony between them and it, to see it as what they should live along with, to develop ecological sensitivity and try to keep nature intact in everyday life. In other words, moral education should aim at instilling nature-friendly values in them, and existing dual view of the world and dual values should be replaced with totalitarian view and totalitarian values.

Second, the way of looking at life should change, and the concept of life should be extended. Nature is the source of human survival. Time-honored oriental view of life and organicism, which is lately highlighted in the west, see human and nature as a huge living creature. Even a stone as well as humans should be respected as a valued living thing.

In the future, both environmental education and human educa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education about respect for life, and this education should be handled in every field of moral education.